

종교화합과 조국통일 백일기도 및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발표대법회



- 일자 2001. 11. 8(목) 오전 10시, 오후 2시(음 9. 23)
- 장소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 주최 오대산 월정사
- 주관 치악산 구룡사
- 후원 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원주시, 시의회, 원주문화원, 설악산진흥사, LG그룹, 한진그룹, 강원불교연합회, 원주불교사암연합, 원주MBC, 원주 KBS, 강원일보사, 도민일보사, 원주불교단체연합, WTN, WBS, 원주투데이, BBS, BTN, 불교신문사 (무순)

종교화합과 조국통일 백일기도 및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발표대법회

- 일자 2001. 11. 8(목) 오전 10시, 오후 2시(음 9. 23)
- 장소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 주최 오대산 월정사
- 주관 치악산 구룡사
- 후원 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원주시, 시의회, 원주문화원, 설악산진흥사, LG그룹, 한진그룹, 강원불교연합회, 원주불교사암연합, 원주MBC, 원주 KBS, 강원일보사, 도민일보사, 원주불교단체연합, WTN, WBS, 원주투데이, BBS, BTN, 불교신문사 (무순)

종교화합과 조국통일 백일기도 및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발표대법회

목 차

- | | | |
|----|---------------------------|-------------------------|
| 5 | 식순 | |
| 7 | 대회사 | 원행 스님 (구룡사 주지) |
| 8 | 치사 | 정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
| | | 지하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 10 | 축사 | 김진선 (강원도지사) |
| | | 한상철 (원주시장) |
| | | 이창복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
| | | 함종한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
| 14 | 법어 | 현해 스님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주지) |
| 15 | 구전설화로 본 치악산의 불교사회사 | 김익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39 |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며 | 이용욱 (북원문화역사연구소 소장) |
| 51 | 원주 법천사 · 거둔사 · 흥법사 고찰 | 박한설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 65 | 불교와 산악신앙 | 정병조 (동국대학교 교수) |
| 75 | 나말려초 북원경의 정치세력재편과 불교계의 동향 | 이인재 (연세대학교 교수) |

종교화합과 조국통일 백일기도 및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발표대법회

| 식 | 순 |

□제1부 백일기도 입재

사회 : 현법 스님 (관음사 주지)

집탁 : 일진 스님 (대덕사 주지)

합창 : 구룡사 합창단

개 회 사	사회자
삼 귀 의 례	합창단
반 야 심 경	다함께
현공 · 축원	무이 스님 (영원사 주지)
대 회 사	원행 스님 (구룡사 주지)
치 사	총무원장, 종회의장
축 사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발 원 문	청우 스님 (낙가사 주지)
청 법 가	합창단
법 어	현해 스님 (월정사 주지)
축 가	합창단
내 빈 소 개	사회자

□제2부 학술발표회

진행 · 사회 : 신종원 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 제 1 주제	구전설화로 본 치악산의 불교사회사 김의숙 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	-------	---

제 2 주제

원주 법천사·거둔사·홍법사 고찰
박한설 박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제 3 주제

불교와 산악신앙
정병조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제 4 주제

나말여초 북원경의 정치세력 재편과 불교계의 동향
이인재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제3부 종합토론

사회 : 신종원 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지 정 토 론

이용욱 소장 (북원문화역사연구소)
문명대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현각 스님 (중앙종회 의원)
최병헌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자 유 토 론

전체대중

사 흥 서 원

합창단

산 회 가

합창단

폐 회

사회자

□제4부 점등

점 등 법 회

각단체대표

신사년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법회에 동참하신 큰스님과 기관단체장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치악산은 한국명산의 오악중의 하나로서 동금강산, 서구월산, 남지리산, 북묘향산의 중앙에 있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치악산과 한강의 상류인 섬강 주위에서 부처님 사상으로 살아왔습니다.

탄허 큰스님의 예지에 의하면 21세기는 불교의 동체대비 자비의 대승적인 화엄사상이 주된 사상이며 물질이나 과학이나 사회주의는 쇠퇴한다 하였습니다.

남북통일의 중심지이고 강원도의 중심지이며 지금도 물량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또 강원제일의 30만 시민을 위하여 우리 조상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주지방의 불교문화와 역사 및 시대적 정치 상황을 발표 토론하여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회에 참석하신 김의숙 박사, 박한설 박사, 정병조 박사, 이인재 박사와 지정토론에 참석하신 이용욱 소장, 문명대 박사, 현각 스님, 최병현 박사, 그리고 사회 신종원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45년 11월 8일
치악산 구룡사 주지 원행

청명한 가을에 한국불교의 계승발전에 관심을 갖고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히 불교문화입니다. 시대에 따라 화려하고, 때론 질박하게 표현되었지만 그 시대의 정신을 응축하여 이런 문화유산을 꽃피워냈습니다.

치악산의 구룡사는 신라 말의 의상 대사, 도선 국사를 비롯하여 조선초기에는 무학 대사, 그리고 조선중기에는 서산 대사가 머물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여 강원도 수사찰의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원주지역은 예로부터 뛰어난 선사들의 법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구룡사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그런 역사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법등을 잇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치하하는 바이며, 이러한 불교문화의 전파와 홍보의 의지는 종단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학술세미나의 장이 되길 바라며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 이하 대중스님들,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45년 11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자연과 인간, 사상과 이념과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세상만물과 주의주장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존공생하며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교계대덕스님과 학자님들이 남북화해의 중심이며 물량과 교통의 중심인 원주에 모여서 인류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불교의 새로운 조명과 계획을 논의하는 금번 「치악산의 불교문화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어 정말 뜻깊습니다. 특히 금번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가 강원도 중심도시인 원주의 천년고찰이자 신라의 명찰인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문명의 발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돌이키기 힘든 인간성 상실과 환경파괴, 종교간의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21세기도 이러한 물질문명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꿈과 희망만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21세기 인류문명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천년동안 민족의 정신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서 다양하고 유의미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정신과 생활의 근본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강연회는 원주지역의 정신적, 윤리적 가치기준으로서 불교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새로운 모습과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영서원주지역의 불교역사와 역할을 조명하여 사찰이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에 있어서 그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제시 또는 연구고찰하는 금번 학술세미나는 영서원주불교의 중심도량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구룡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금번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종교화합과 환경문제와 종교간의 이해등을 새롭게 각성하여 부처님 품안에서 모두가 원융화합하여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강연회와 세미나를 준비하신 구룡사주지 원행스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45년 11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지하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호흡을 같이해 온 찬란한 불교문화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치악산 불교문화 학술발표회가 천년의 고찰인 이곳 구룡사에서 개최됨을 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리 민족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혀온 지도 어언 1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우리민족과 호흡을 같이 해오면서 우리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중흥의 기운을 크게 발했을 때, 나라가 흥하고 겨레의 마음도 한 덩어리로 굳게 뭉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선비를 대신하여 세 번 종을 울린 꿩 이야기로 대표되는 그 빼어난 풍치만큼이나 유명한 불교적 설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치악산의 전통문화와 불교정신을 조명하고 나아가 21세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 사상적 단초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뜻깊은 학술발표회를 불철주야 준비해주신 구룡사 원행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계속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 8

강원도지사 김진선

먼저, 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뿌리와 정신을 찾는 기회가 될 뜻깊은 학술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는 일찍부터 원활한 운송망을 배경으로 우리 나라 5천년 역사에서 항상 중추기능을 담당하여 왔음은 물론 많은 인걸이 운집했고, 국운융성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복원정이 설치되고, 조선시대에는 500년간 강원감영이 위치하는 등 행정과 군사, 문화 등의 중심을 이루며 곳곳에 수 많은 문화유적을 남긴 유구한 역사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원주의 영광 뒤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호국의지를 다지며 지역안정과 발전을 가능케 한 불교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주는 현존하는 보물을 비롯한 지역내 사찰의 규모로 보아 명산인 치악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싹트고 번창한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가 숭고한 교리와 부처님의 지혜를 확산시키며, 시민 속에서 더욱 번창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학술발표회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 8

원주시장 한상철

가을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치악산의 정기가 내려오는 이 곳 원주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행 주지스님, 원주시민여러분

예부터 禪을 중시하는 불교가 우리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곳 원주는 통일신라 때 창건된 천년고찰 거둔사,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에 완성된 법천사, 고려불교의 실질적인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흥법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남한강변을 끼고 조성된 세 사찰은 강원도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이자 원공 국사, 진공 국사, 지광 국사 등의 활동으로 고려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세 사찰 모두가 고려불교 중흥의 기반이 되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민족문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불교뿐 아니라 신라시대 불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구룡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진행되기에 더욱 뜻깊은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잊혀졌던 우리 원주불교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원행 주지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 8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창복

저는 몇 해전부터 치악권의 문화유적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출발한 탐사여정이었습니다만 첫 발걸부터 치악 기슭을 벗어나 엉뚱하게도 서울의 경복궁 뜰을 배회해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유물전시장이라 불리는 그 곳에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수십 점의 석조예술품이 흩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치악 기슭에서 옮겨진 사찰유물들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석조예술품으로 평가받는 법천사의 지광국사현묘탑을 비롯해서 흥법사에서 옮겨진 진공국사 부도탑, 거둔사에서 옮겨진 원공국사승묘탑 등 모두가 고려시대에 다듬어진 걸작들입니다. 일제강점기간 동안 뛰어난 예술성에 눈독을 들인 총독부 관료들에 의해 수탈 당하여 더러는 일본에까지 밀반출되었다가 해방 이후 되찾아오기도 하였고 총독부 정원에 세워졌던 것을 다시 옮겨놓는 수난을 겪으며 남아있는 보물들이자 우리 고장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입니다.

이렇듯 원주지역은 멀리 삼한시대부터 수많은 거대사찰이 자리했었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사(國師)나 왕사(王師) 등의 중책을 맡았던 선사(禪師)들이 대물림으로 주석하면서 중원의 불교계를 이끌었던 한국불교의 중흥지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천사지를 비롯한 곳곳의 폐사지에는 옛날 우리고장이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선사들의 행적과 관련된 설화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후예로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방치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늘 어깨가 시렸었는데 오늘에 와서 뜻 있는 학자들이 고장의 불교자취를 더듬어 발표회를 갖게 되었음은 치악권에 등을 대고 사는 모든 이들의 무거움을 털어주는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고장의 불교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을 주관하여 오신 구룡사 원행 주지스님의 높이신 원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치악권 불교문화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대로 외지로 옮겨진 이전유물을 복원시키는 일에 고장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복궁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당국자와 협의한 바 있고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반환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우리 고장의 이전유물이 복원되는 날, 우리 원주는 중원의 불교문화유적지로 상당한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하기에 따라 유망한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학술발표회가 지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1. 11. 8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함종한

五蘊皆空 界何有 오온이 다 공한데 법계가 어찌 있을 것이며,
剎那去却 劫有哉 찰나를 잊었는데 억겁인들 어찌 있겠는가
千年流水 今猶然 천년을 흐르는 물은 오늘도 여전한데
愚事覓出 飛禽跡 새가 날아간 흔적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일이며.

사람의 정신작용이나 육체가 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법계가 항상할 수가 있으며, 순간적인 짧은 순간도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한없는 긴 세월을 어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천년을 두고 흐르는 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지만 새가 하늘을 날아간 흔적은 남아있지 않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그 흔적을 찾으려 한다.

새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시간 공간의 개념에서 모든 집착을 벗어나야 참된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증생의 고통은 잘못된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심과 번뇌에 가득찬 생각으로 보고 느끼는 현실은 진실일 수가 없다.

거울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비치나 그 거울 속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거울속에 비치는 모습을 거울 앞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거울에는 여자가 그앞에 나타나면 여자가 비치고 서양사람이 있으면 서양 사람이 비친다. 그러나 대상이 없어지면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진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현상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見聞覺知 非——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진실이 아니니,
山河不在 鏡中觀 거울에 비친 산과 강은 거울속에 없는 것
霜天月落 夜將年 하늘엔 찬서리요 달은 지고 밤은 깊는데
謝悟洲照 影眞像 그 누가 깊은 물에 비친 그림자의 참 모습을 깨달을건가.

불기 2545년 11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주지 현해

구전설화로 본 치악산의 불교사회사

김 의 숙

구전설화로 본 치악산의 불교사회사

김 의 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차례 I. 머 리 말

II. 설화에 나타난 치악산 불교사회사

1. 원천석은 불교적 지성인이었다
2. <평 전설>에 담긴 불교사회의 이면사
3. 태종의 비호로 흥성하고 유생 때문에 망한 각림사
4. <구룡 설화>에 나타난 불교와 이교도와의 갈등

III. 결 론

. 머리말

치악산은 적악(赤岳)으로 부를 정도로 풍치가 아름다우며, 산세가 급하고 북원벌에 가까이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일찍이 나라에서 동악(東岳)으로 삼아 단(壇)을 설치하고 소사(小祀)의 향축을 내렸던 성산(聖山)이다.¹⁾

여기에는 일찍이 상원사, 구룡사, 각림사, 석남사 등 유명한 사찰이 창건되었고, 운곡(耘谷) 원천석

1) 치악산(東岳)은 구월산(西岳), 지리산(南岳), 묘향산(北岳) 등과 함께 나라에서 춘추로 향축을 내려 치제하였다. 동국여지승람(원주목)에 치악산은 진산(鎭山)으로서 산정에 속칭 보문당(普門堂)이 있다고 하였다. 태종실록(태종14년 8월)에 의하면 예조에서 사전(祀典)제도를 새로이 올렸는데 악해독(嶽海濱)은 중사(中祀), 산림천택(山林川澤)은 소사(小祀)로 삼는다고 하였다.

(元天錫) 선생이 은거하여 수도하였다. 그리고 <영원산성 싸움과 마고할미> <금대리 금시발복터> <나옹소>²⁾ <치악산 구렁이와 꿩> <구룡九龍> <서산대사와 구룡사 보리수>³⁾ <빈대 때문에 망한 각림사> 등 구전설화가 전승한다. 또 태종이 스승인 원천석을 생각하면서 쌓았다는 입석사의 <청석탑>, 치악산 정상인 비로봉(시루봉)의 <미륵탑> 설화 등도 회자되고 있다.

구전설화는 문학이기 이전에 민중이 바라본 역사이다. 비록 향유층인 민중 쪽에서 정서적으로 참사가감한 면은 있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실제의 진실을 바탕으로 꾸며진 사실의 포장이다. 그러므로 포장만을 보고 그것으로 내용물을 판단은 성급하고 불확실하다. 내용물은 그 포장을 벗겨낸 후에야 비로소 확인되듯이 설화의 은유성과 상징성을 벗겨내었을 때 내용물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문학적 진실이 드러난다.

설화 연구의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있는 문헌기록의 역사가 기록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되었듯이 설화의 변이성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과거에 어떤 개인이나 계층에 의해 인식된 사건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으로 고쳐 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이야기는 변이되기 시작한다. 그렇더라도 전술(前述)하였듯이 그 변이는 원뿌리에서 파생하는 변종(變種)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착하면 원뿌리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구전설화를 통하여 불교사회를 이해하여 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치악산 주변에 전승하는 불교적 설화 중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하는 원천석 이야기, 까치전설, 구룡사의 구룡설화, 각림사의 폐사담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나옹沼는 부곡2리의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데, 나옹화상이 물줄기를 뚫었다는 샘못이다. 치악산 남대봉의 상원사는 일찍이 의상대사(또는 무착대사)가 창건하였으나 물이 솟는 늪지에 있어서 쇠잔하였다. 그래서 고려말에 나옹대사가 이곳으로 와 지팡이로 물줄기를 뚫으니 상원사의 늪물이 여기로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나옹소의 물은 수량이 많아서 송어양식에 이용되고 있는데, 6.25때 및 옥영수 여사 사망 때에는 흙탕물이 나왔다고 한다. [이영식, 황성의 지명유래, 황성문화원, 2000, 131쪽. / 치악산 주변지역문화조사, 강원문화연구(7집), 1987, 81쪽, 참조]

3) "구룡사 정내에 보리수 한 그루가 있는데, 옛날 서산대사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은 것이랍니다." [치악산 주변지역문화조사, 강원문화연구(7집), 1987, 83쪽]

II. 설화에 나타난 치악산 불교사회사

1. 원천석은 불교적 지성인이었다

1)치악의 인물 - 원천석

원주와 치악산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들라면 단연코 윤곡 원천석이 엄지로 꼽힌다. 주지하다시피 윤곡은 조선왕조를 거부하고 망해가는 고려왕조를 향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기 위해 치악산에 은거한 유학자로서 때가 오면 출사(出仕)하고 때가 아니면 물러나 절의를 지키면서 학문을 연마하거나 후학을 지도하는 한국적 선비의 전형이었다.

윤곡은 본래 본관이 원주(原州)이고, 자(字)는 자정(子正)이며, 호는 윤곡(耘谷)이다. 고려말에 정용별장(精勇別將)을 지낸 열(悅)의 손자이며, 종부시령(宗簿寺令)을 지낸 윤적(尹迪)의 아들로서 원주 元씨의 중시조이다. 윤곡과 관련된 문집으로 《윤곡시사(耘谷詩史)》가 있는데, 여기에는 윤곡의 한시(漢詩) 1141수가 실려 있다. 그는 문장에 여유가 있고 학문이 해박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고려 말의 문란한 정치 상황을 보고 개탄하면서 치악산으로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였다.

윤곡에 대한 이야기는 치악산 주변 특히 동쪽인 황성군 강림면의 강림리와 부곡리에 여러 편이 전승한다. 그가 은거하였다는 〈고갈바위(巖)〉, 〈횡지암(橫指庵)〉, 노파가 빠져 죽었다는 〈노고소(老姑沼)〉, 태종이 말에서 내려 쉬었다는 〈태종대(太宗臺)〉(주필대(駐畢臺)), 태종이 절하였다는 〈배향산(拜向山)〉 등이 그것이다.

조선이 건국하자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은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윤곡은 현재의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기슭의 갯바위의 횡지암에 숨어 지낸다. 조선조 3대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옛 스승인 윤곡의 학덕을 생각하고 관직에 천거하기 위해 심심산골인 치악산으로 찾아온다. 그런 사실을 안 윤곡은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왕자가 마을에 이르자 노파는 엉뚱한 방향을 일러 주었고, 수하를 보내어 찾아 모셔오도록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후에 노파는 왕을 속인 사실 때문에 자책하여 빠져 죽었다는데, 그곳이 '노고소(할미소)' 라고 한다.

한편 방원은 스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발길을 돌리면서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하였으니 그 산이 '배향산' 이다. 그때 방원이 쉬면서 스승을 생각하던 곳이 '주필대' 이고, 후에 비석을 세우고 '태종대' (지방문화재자료16호)라 하였다. 지금 절벽의 아래쪽 바위에는 음각으로 '太宗臺' 라고 쓴 문자가 있고, 비각 안에는 '駐畢臺' 라고 쓴 비석이 있다. '주필'이란 왕이 거동하는

중간에 잠시 말을 세우고 쉬는 뜻이다.⁴⁾

2) 불교적 인물 - 원천석

이상의 설화에서 보듯이 윤곡은 시대에서 시대를 넘어 원주와 치악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윤곡은 일반적으로 절의(節義)의 유학자(儒學者)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불도(儒佛道) 3교의 가르침이 똑같이 성인이 남긴 고귀한 진리라고 역설한 인물이고, 특히 치악산에 은거하여 못 승려들과 널리 교유한 불교인이며 수도자(修道者人)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윤곡은 《윤곡시사》의 〈三教一理〉(竝書, 권3)에서 유불선(儒佛仙) 삼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치에 두루 통달한 그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유교는 이치를 궁구해서 성품을 다함을 가르치고, 석교(釋敎)는 마음을 밝혀 견성함을 가르치며, 도교는 참됨을 닦아서 본성을 단련하는 것을 가르친다. ... 세 성인이 베푸신 가르침은 오로지 본성을 다스림에 있다. 극진히 단련하고 드러난 도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확연히 밝은 곳에 이르면 다 하나의 본성에 일치한다. 어찌 막히고 꺼릴 바가 있겠는가. 다만 세 성인에게는 제각기 문호가 있어 문도들이 각자의 종지에 따라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이는 각자의 가슴 속에 삼교의 본성이 밝게 갖추어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당나귀를 탄 사람이 다른 나귀를 탄 사람을 비웃는 꼴이니 참으로 안타깝도다.」⁵⁾

《윤곡시사》에 보면 윤곡이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왕래하거나 거론한 사찰이 18개에 이른다. 곧 마전사(麻田寺), 환희사(歡喜寺), 영천사(靈泉寺), 만세사(萬歲寺), 상원사(上院寺), 무주사(無住寺), 청평사(淸平寺), 원통사(圓通寺), 원적사(圓寂寺), 도경사(道境寺), 천림사(泉林寺), 운대사(雲臺寺), 신흥사(神勒寺), 고달사(高達寺), 문수사(文殊寺)⁶⁾, 각림사(覺林寺)⁷⁾, 송화사(松花寺), 적용암(寂用庵) 등이다.

윤곡은 이상의 사찰을 방문하여 스님들과 교유하고 문답하면서 다수의 시를 남겼다. 그 가운데

4) 태종(이방원)은 왕자시절에 윤곡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 윤곡을 불렀으나 옹하지 않으므로 몸소 찾았지만 피하는 바람에 집을 지키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갔다. 그리고 대신에 윤곡의 아들인 형(洞)을 基川(현재의 풍기) 현감으로 임명하였다. 태종이 윤곡의 집을 떠나오면서 앉아 쉬는 곳이 지금 안흥면 부곡에 있는 태종대인데, 치악산의 각림사 곁에 남아 있다. (許穆, 石逕墓所事蹟, 耘谷詩史, 권5)

5) 임종옥, 윤곡 원천석의 불교시 연구, 불교어문논집,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 239쪽

6)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원주목, 佛宇條에 문수사가 치악산 서쪽 골에 있다고 하였다.

7)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원주목, 佛宇條에 각림사가 치악산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운곡이 39세 때인 1368년 선달에 들렀던 마전사에 관한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戊申十二月 무신년(1368) 선달
立春後八日 입춘 후 여드렛날에
客子訪僧居 객이 스님의 거처를 찾으니
僧居依翠密 스님의 거처는 비취색 깊은 곳이네
陽崖雪半消 별드는 벼랑에 눈이 반쯤 녹았고
陰壑風蕭瑟 그늘진 골짜기에 바람이 소슬하구나
主人不開門 주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安然坐禪室 편안히 좌선에 들었네
問道默無言 도를 물어도 묵묵히 말이 없으니
正是維摩話⁸⁾ 바로 이가 유마힐이 아닌가!
目擊心自知 눈으로 보고 마음이 저절로 열리니
無得亦無失 얻음도 없고 잃은 것도 없도다
端坐凡忘機 단정히 앉아 못 기미를 잊으니
斜日照書帙 비긴 햇살이 책갈피에 스민다
山鳥莫催歸 산새야 갈길을 재촉하지 말아라
重遊恐難必 다시 올려도 기약하기 어렵네.⁹⁾

위의 시를 보면 유학자로 알려진 운곡이 불법에도 깊이 통달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운곡은 스님과도 깊은 교유가 있었다. 도경선사(道境禪師)는 자식 잃고 아내까지 잃은 재앙을 당한 운곡에게 두 편의 시를 보내며 극진히 위로하였다. 곧 선사는, 무릇 생명이란 원래 텅 비어서 명상(名相)을 떠난 것이고 문득 왔다가 홀연이 사라지는 것이니 지나친 슬픔으로 감정을 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¹⁰⁾

8) 유마힐은 인도의 비야리국 장자로 속세의 거사로 있으면서 보살도를 수행한 사람이다. 그의 수행이 하도 깊고 높아 이름이 높은 부처님의 제자들도 상대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유마힐소설경》에 의하면,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문수보살이 여러 성문과 보살을 데리고 문병을 갔다. 그때 유마는 여러가지 신통력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잠자코 말이 없는 것으로써 不可言不可說의 뜻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9) 〈遊麻田寺〉, 운곡시사, 권1.

또 운곡이 송화사의 스님을 기다리면서 지은 시를 보자.

아침 이슬 맞은 덤불을 헤치고 언덕에 오르니
주인은 어드멜 가셔서 선방을 잠그셨나
솔바람만 노니는 이의 뜻을 알아
손님 자리로 시원함을 보내는구나.¹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운곡은 많은 불교시를 지었으며, 불교학에 조예가 깊었고, 여러 사찰을 순례하면서 뜻 스님과 깊은 교유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주를 본관으로 한 저명한 선비인 '원천석'은 송유배불의 시절에 태종과 더불어 치악산 불교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하겠다.

2. <평 전설>에 담긴 불교사회의 이면사

1)치악산<평 전설>

원주의 진산은 치악산(雉岳山)이다. 우리나라 4대 명산인 남악 지리산, 서악 구월산, 북악 묘향산, 그리고 동악으로서의 치악산은 나라에서 향(香)과 축문(祝文)을 보내어 제사하던 성산(聖山)이다. 특히 치악산은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赤岳)'이라 하였는데, <평 전설>이 전승하면서 평 '치(雉)'자로 바뀌어 '치악'이 되었다.

이 치악산에 상원사가 있고, 상원사의 종소리에 얹힌 구비전승이 있으니 세상에 두루 회자하는 <평 전설>이 그것이다. 이 설화의 명칭은 이밖에도 <종소리> <한량과 구렁이>, 그리고 평이 까치로 바뀌어 <까치의 보은> 등의 이야기로도 전승한다.

「한 나그네가 과거를 보려고 적악의 고개를 오르고 있을 때였다. 그때 인근에서 갑자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므로 살펴보니 구렁이가 평을 휘감고 잡아먹으려는 참이었다. 나그네가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 구렁이에게 던지니(혹은 활로 쏘니) 정통으로 맞아 구렁이는 죽고, 평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공중을 선회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갔다. 나그네는 연약한 날짐승의 생명을 구하여 준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산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다. 무인지경이라서 인가를 찾지 못해 걱정하던 중 불빛을 보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그 집에 찾아드니 아릿다운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10) <道境大禪翁寄書曰 去年哭子 今又失主婦 悲哀相繼 痛甚無極...詩曰 一物元虛絕相名 塊然成質托微生 忽來.. 운곡시사, 권1

11) <遊松花寺 適主師出外 待之而作>, 운곡시사, 권5

그는 결례를 무릅쓰고 목어갈 것을 청하자 여인이 허락하고 음식상을 들여왔다. 나그네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감사함을 표하고 피로에 지쳐 잠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밤중에 가슴이 심히 답답하여 눈을 뜨고 보니 아이쿠 큰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구렁이가 "너는 낮에 내 남편을 죽였으니 이제 너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기겁하였으나 기력을 다하여 "나는 당신의 남편과 평소에 아무런 원한이 없었오, 오늘 내가 당신 남편을 해친 것은 약한 평을 잡아먹으려 하기에 순간적으로 자비심이 발동하여 그리 된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오"하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뱀은 "그렇다면 이 산중에는 스님이 살지 않는 한 절에 종이 매어 있는데 올리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다. 만약에 새벽이 될 때까지 종이 3번 올리면 우리가 승천할 수 있으니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나그네는 체념하고 죽을 준비를 하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땡! 하고 종소리가 들려 왔다. 이어서 땡! 소리가 나고, 이윽고 또 땡!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뱀은 스르르 나그네를 풀어주고 사라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그네는 절을 찾아 나섰고, 종각 바닥에서 머리가 깨어져 죽은 한쌍의 평을 발견하였다. 비록 미물이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살신성인한 평을 보고 나그네는 눈물을 지으며 시체를 거두어 무덤을 만들고는 '보은총(報恩塚)'이라 하였다. 그리고 나그네는 그 절의 스님이 되어 살면서 평의 명복을 빌었다. 이때부터 적악을 치악산이라 하였으며, 그때의 낡은 절은 상원사라고 전하여 온다.」

이 전설은 겉으로 보면 틀림없는 '보은설화(報恩說話)' 곧 생명의 은인인 나그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은혜에 보답한 평 이야기이다. 따라서 <평 전설>은 "미물인 평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가르침의 수단으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2) <평 전설>의 의미

설화는 상징과 은유로 포장한 민중의 역사이며 사실이다. 민중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역사와 현실을 은밀히 구현하고자 인물과 사물을 허구화(虛構化)하기 일쑤이다. 상원사의 <평 전설>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보은(報恩)'의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로써 사회사적 진실을 숨기고 있다.

<평 전설>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치악산 주변에서 전승하는 다른 전설 하나를 살펴보자.

「어느 해 상원사 주지는 신종을 만든다면서 각처의 수많은 집에서 식구수대로 순가락과 쇠불이

를 시주로 받았다. 주지는 처음에는 불심 그대로 종을 만들려 하였으나 견물생심이 생겨 내연의 보살과 짜고 거두어들인 쇠불이 중 반을 숨겨놓고 종을 만들었다. 주지는 종각을 짓고 나라의 태평과 불법의 흥포를 위해 만든 종을 매달았다. 그리고 시주를 한 모든 불자들을 모으고 타종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거창한 종을 보고 주지의 원력을 칭찬하면서 사바세계에 널리 울려 퍼질 종소리를 기다렸다. 이윽고 주지가 손수 타종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종을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 연이어 몇 차례 쳐보았으나 툃툃 췌소리만 날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허공에서 주지의 탐욕을 질타하는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어느 때든지 이 종이 울릴 때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지와 보살이 구렁이로 변하여 스르르 덩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¹²⁾

위의 자료로 볼 때 <뽕 전설>의 구렁이는 탐욕스런 상원사 주지와 보살이 업보로 받은 변신이고, 종소리는 저주받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자비의 범음이다.

불교 의식에서는 전통적으로 4가지의 기구가 쓰이고 있다. 곧 범종, 범고, 운판, 목어이다. 범종(梵鍾)은 지옥의 중생은 물론이고 천상의 중생까지도 제도하여 사후의 왕생을 위해 울리는 것이고, 범고(法鼓)는 축생의 가족으로 만들어졌기에 축생의 과보를 받고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며, 구름 모양의 운판(雲板)은 육신을 떠나 갈 곳을 찾지 못해 귀신(中陰身)으로 떠도는 중생을 위해, 그리고 목어(木魚)는 수중에 살고있는 온갖 중생을 제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울리는 범구(法具)이다.

범종을 만들었으나 거기에 욕심이 든 까닭에 업보를 받아 종이 울리지 않고 주지와 보살은 뱀이 되고 더구나 주지는 지옥에 떨어졌으니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애초부터 범종이 울렸어야 하였다. 그러던 차에 뽕의 보은으로 종이 울리니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장이 소멸되어 승천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구렁이가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뽕이 보은하여 종소리를 울린다는 화소(話素)를 대입하여 구성한 것이 이 설화이다.

이러한 유추의 타당성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설화가 있으니 곧 홍만종의<순오지>에 있는 <뱀이 된 화주승>이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상좌를 데리고 한 고을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은 개울

12) 한국 명산대찰, 한국관광문화연구소편, 국제불교도협의회, 불기2526, 120쪽. 복원의 자취, 강원도 원성군, 1987., 101쪽

을 만났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개울을 다리로 건너려 하지 않고 바지를 걷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좌는 의아해서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스님은 “이 다리를 놓을 때에 화주승 하나가 다리를 만든다고 핑계 대고 돈과 곡식을 많이 시주 받아서는 그 태반을 사용(私用)에 써버렸다. 그리고는 조금 남은 것으로 이 다리를 놓았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죄를 받고 죽은 뒤에 괴상한 짐승으로 변하여 이 다리를 지키고 있게 되었다. 네가 그 짐승을 보고 싶다면 내가 그 짐승을 나타나게 하리라.” 스님이 말을 마치고《능엄경》한 귀를 외었다.

조금 있으려니까 큰 뱀 한 마리가 다리 밑에서 기어 나오더니 다리 위에 허리를 걸치고 누웠다. 길이가 두 길이나 되었다. 게다가 그 뱀의 좌우에는 작은 뱀 여러 마리가 따라 나와서 그 곁에 머리를 마주 대고 있었다. 상좌가 작은 뱀에 대해서 물었다. 스님이 이르기를 “저것 역시 이 다리를 놓을 때에 돈과 곡식을 운반한다고 핑계 대고 중간에서 도둑질하여 먹은 연유로 저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상좌는 경탄하기를 마지않으면서 합장하고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 장차 무슨 도술을 써서 저것들을 돌려보내시렵니까?” 그러자 스님은 “만일 수륙제(水陸齋)를 여기서 행한다면 그 현신(現身)을 개울가에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좌는 그 다리 옆에 제물을 설비하고 재(齋)를 올리게 되었다. 3일3야에 걸쳐 재를 올리면서 장작불을 놓고 있으려니, 큰 뱀이 다리에서 내려와 화염 속으로 들어가 곳곳이 섰다. 이것을 보자 작은 뱀들도 큰 뱀이 하는 대로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서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뱀들은 모두 불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타서 죽었다.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다리를 둘러싸고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경탄하기를 마지않았다고 한다.」

이상의 설화에서 뱀은 <뽕 전설>의 구렁이와 동일하고, 잘못 된 다리는 잘못 만든 종과 같다. 그리고 그 뱀들이 수륙제로써 저주를 풀었듯이 <뽕 전설>에서는 종소리라는 법음(法音)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업보에 의해 구렁이로 변한 인물에 대하여 내용을 보충할 만한 또다른 자료가 치악산에서 전승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상원사의 계수나무가 서 있는 앞 약 40m의 절벽바위를 ‘용마바위’ 라고 한다. 용마바위의 벼랑 끝에는 지금도 말발자국 형태로 패어진 자리와 사람의 손가락자국같이 패어진 곳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상원사의 상좌가 건너 쪽 제천 땅 감악산의 백련사의 보살과 사귀게 되었다. 그래서 밤이면 만나고 새벽이면 용마를 타고 돌아왔다. 어느 날은 늦다보니 상원사의 종을 칠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 오게 되었고, 급히 서두르다보니 말에게 충분히 먹이를 주지 못하였다. 그 커므로 말이 힘이 없어서 바위를 건너 뛰어 올랐으나 두 발만 오르고 나머지 두 발이 오르지 못해

떨어져 죽고, 상좌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간신히 벼랑끝을 붙잡아 목숨을 구하였다. 현재의 말발자국과 손가락자국은 그때 생긴 것이라고 한다.¹³⁾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땡 전설>은 과거의 어느 한 시대에 상원사의 스님이 욕심이 많아 항간의 지탄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마음을 고쳐 성불한다는 사회사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소리를 들리게 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은 누구라도 간절히 참회하고 불도를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불교정신의 표현이고,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는 민중의 자비스런 정서가 엮여낸 윤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참고로 부언하면, 원래의 상원사 종은 각림사를 거쳐 1943년에 일제에 의해 공출되었고 한다. 그 종은 길이 1m에 폭 60cm쯤 되는 중간형의 동종(銅鍾)으로 소리가 맑고 울림이 커서 십리 밖의 마을에도 들렸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원사 종은 10여m 높이의 용바위에 지은 종각 안에 있는데, 크기가 매우 크다. 이는 방문객이 종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므로 서울의 성종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라 한다.¹⁴⁾

3. 태종의 비호로 흥성하고 유생 때문에 망한 각림사

1) 각림사 설화

치악산 동쪽 현재의 황성군 안흥면과 강림면에 가면 지금은 자취도 찾아보기 어려우나 그곳에 있었다는 '각림사'라는 사찰의 흥망성쇠를 전하여 주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각림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강림사라고도 해요. 저기 태종대의 태종이 지은 절이래요. 그 자리는 현재 강림우체국 자리 조금 위 좌측 발이죠. 거기서 기왓장이랑 쇠북 거 둥그런 냄비 정도의 바라 있지요? 그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절은 빈대 때문에 망했대지요. 빈대 때문에 살지 못하고 망했는데, 재료 일부를 오대산 상원사로 옮겼다는 거예요.”¹⁵⁾

13) 하효길, 치악산지대의 전설, 한국민속학(7집), 125쪽.

한국 명산대찰, 한국관광문화연구소편, 국제불교도협회회, 불기2526, 120쪽.

14) www.okmountain.com/chiak/cul-1.htm, 참조

15) 제보자 : 김용성(남, 73세), 강림5리, 2001.8.18. 채록

2) 각림사의 흥성

각림사는 현재 강림5리의 강림우체국 자리에 있었던 사찰로서 조선조 초기에 태종(이방원)의 비호로 크게 번창하였던 사찰이고, 운곡 원천석이 자주 들러 문답을 나누던 수도처였다.

조선조 초기에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한 변계량¹⁶⁾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이 동해지방에 이름이 높고
山之寶刹覺林最 산의 사찰 중에 각림사가 제일 좋네
雲煙巖壑幽千年 운무와 바위골짜기 몇 천년이던가
地靈擁衛天龍會 지령이 천신과 용신의 모임을 감쌌네¹⁷⁾

수많은 사찰을 두고 하필 “각림사가 제일 좋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의 원찰로서 왕의 배려로 훌륭하게 중창된 사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각림사는 우리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여기서 글을 읽었다. 뒤에 흥성에서 강무(講武)할 때에 임금의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노인들을 불러다가 위로하였으며,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주의 관원에 명령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여 구휼하였다.”고 하였다.¹⁸⁾

이로 보면 각림사가 태종의 배려로 흥성하였음이 분명하다.

《태종실록》보면 태종이 소시적에 각림사에서 독서하였고, 그로 인한 인연으로 왕의 꿈에까지 대양 “사우(寺宇)와 산천이 보이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태종은 ‘각림사’에 대한 논의가

16)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태종과 세종 2대에 걸쳐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그는 16세에 문과에 급제한 이래로 관계에 입문하여 승진을 거듭하고 1407년 그이 나이 39세 때 예조 우참의, 41세에 예문관 제학, 1417년 49세에 대제학과 예조판서 등을 제수받아 오래도록 봉직하였는데, 그간에 각종의 외교문서와 비문을 짓고 史書를 편찬하였다.

17)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원주목, 佛宇條

18) 위책, 같은 쪽.

19) 강무는 조선시대에 왕이 주장하여 1년에 2회 봄가을로 행하던 사냥과 무예훈련을 이른다. 강무장으로는 강원도의 철원, 김화, 횡성, 회양, 평강, 경기도의 광주, 충청도의 순성, 황해도의 해주 등이 있다.

20)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제도를 본받아 대양 춘추로 강무를 행하였으니 이는 예로써 거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로 행차하고자 하니, 臣 등은 아직 부도(賁)로 행차하신 뜻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전하의 一身은 자손만대에 취하는 바가 되는즉 명분 없이 거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각림사의 행차를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강무장을 순행하여 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태종실록, 17년(1417) 2월 10일]

있을 때마다 특별히 배려하고 중창 때에는 많은 물자와 곡식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황성으로 강무(講武)¹⁹⁾ 할 때는 부처의 처소(각림사)에 가려는 뜻을 말리는 사간원의 상소²⁰⁾도 물리치고 2회(태종 14년과 17년)에 거쳐 행행(行幸)해서 소원을 빌었다.

《태종실록》에 보이는, 태종과 각림사의 관련 기록을 연차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원주 각림사에香油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승(僧) 석초(釋超)가 주지로 간다고 하직하니 향을 주어 보냈다. [태종 10년(1410) 12월 임자(20일)]
- (2)명하기를 원주목사에게 각림사 중이 수조(收租)한 일을 해문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각림사 주지 석휴(釋休)가 와서 “완우한 승도들이 신이 서울에 나갔을 때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 전객(佃客)이 官에 고소하였고, 또 요역도 다단(多端)합니다.”고 아뢰었다. 승정원에 명하여 원주에 치서(馳書)하기를, “후하게 거두어들인 일은 해문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요역을 경감하였다. 이 절은 방금 재건되어 낙성을 보게 되었다. 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검고 붉은 폐백 1필을 각각 바치고, 승들에게는 면포, 명주포 합계 10필, 마포 50필, 저화(楮貨) 200장을 내렸으니,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독서를 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태종 12년(1412) 10월 기사(17일)]
- (3)(임금이 황성에서 講武를 마치고) 원주 각림사에 거동하였으니, 잠저때 공부하던 곳이다. 절의 중에게 채단, 홍초를 각각 3필, 쌀과 콩을 100석을 내려 주었고, 아울러 田地 100결과 노비 50口를 더 주었다. 또 절의 노비들에게도 30석의 쌀과 콩을 내려 주었다. [태종 14년(1414) 윤 9월 계묘(3일)]
- (4)명하여 철(鐵) 1000근을 원주 각림사에 주니, 사승(寺僧)으로서 중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 16년(1416) 4월 경인(28일)]
- (5)강원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각림사를 중창하는 재목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 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본궁의 쌀, 콩을 합하여 1백 석을 군자감에 바치고, 충천도 제천 창고의 쌀, 콩을 바꾸어 각림사에 주라”고 하였다. [태종 16년(1414) 8월 임오(23일)]
- (6)거가(車駕)가 원주의 각림사로 황행하니 겸하여 강무를 위함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각림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급전(給田)하고 절을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를 핑계로 태조와 모후 두분의 기일에 가서 보고자 하였으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고 9월은 벼가 무성할 때이다. 만약 연고 없이 간다면 대간(大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은 비록 믿기 어렵다고 해도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

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고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 [태종 17년(1417) 2월 갑신(27일)
(7)원주 각림사의 중이 사곡(私穀) 200석을 근처 제천 창고의 쌀 100석과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
하고 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간다. 그러므로 중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들은 성
질이 지리하고 탐할 수 있으니 간사승(幹事僧)으로 하여금 나를 빙자하여 범람하는 일을 못하
게 하라.” 그 뒤에 또 전지하기를, “연안부의 본궁 곡식 200석을 그 부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
도 제천의 창고 쌀 100석과 경원창의 보리 20석을 각림사에 주라” 하니 대개 낙성한 범회를
도운 것이다. [태종 17년(1417) 7월 무오(5일)]

(8)命하여 옥천부원군 유창(劉敞)을 각림사로 보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와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엄경을 만들었는데, 유창에게 이 경을 보내었다. 그리고 각림사가 완성되
매 향(香)과 소(疏)를 주어 범회를 베풀어 낙성하였다. [태종 17년(1417) 7월 무오(5일)]

이상의 기록 중에서 (8)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기록이 있으니 곧《동문선》에 있는 변계량
의 소(疏)가 그것이다. 소(疏)란 주소(奏疏)이니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글이다. 먼저 중창법회에 관
한 글인 〈원주각림사중창경찬법화법석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를 보자.

「각림정사는 일찍이 임금께서 행차하셨던 곳이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다운 경입니
다. 마땅히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러운 법회를 열 만합니다. 생각하오니, 성상의 은혜로 이름 있는
절에 머물게 된 뒤로 재목의 썩은 것은 바꾸고 이지러진 것은 보충하고자 수희(隨喜)할 인연을 널
리 구하였더니 반 년 동안에 부처님을 모실 법당과 승이 살 요사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지기(地祇)와 천룡이 옹호하며, 임금의 꿈에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는 전생의 인연으로서 임금님
의 생각이 특별히 미치신 것입니다. 이번 낙성식을 베풀어서 위[上] 없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한 가
치의 향은 널리 시방의 세계를 향기롭게 하고 삼관(三觀)의 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밝혔습니
다. 감통(感通)함은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는 듯하고 공덕은 항하사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엇드
려 바라옵나니 만복을 받으시기를 해와 달이 항상 쏘는 듯하고 역만년 동안 하늘과 땅처럼 오래 수
(壽)하소서. 왕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태자께서도 길이 길하고 건강하여지이다. 여섯 기운이
순하여 풍우가 때 맞으며, 다섯 가지 무기[兵]를 거두어 조정과 지방이 평안하여지이다.」²¹⁾

21) 국역 동문선, VIII, 539쪽 [東文選, 卷之- 百- 疏]

이 글은 변계량이 썼으나 유창의 입장에서 올린 소로 보인다. 위의 (8)에서 임금이 유창을 각림사로 보낼 때 화엄경을 가져가게 하였고, “성상의 은혜로 이름 있는 절에 머물게 된 뒤로 재목의 썩은 것은 바꾸고 이지러진 것은 보충하고”의 기록에서 유창이 경전과 향 및 왕의 발원문(疏)를 지니고 반년 전에 도착하여 절의 중창을 도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 위의 소(疏) 옆에는 또다른 소가 있으니 역시 변계량이 태종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8)에서 유창에게 소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소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보배로운 절을 중창하는 것은 옛날의 사감을 기념한 것이며, 참다운 경을 설하여 드날리는 것은 저승의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에 간절함을 다하여 백호(白毫)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생각하오니 치악산의 각림사는 젊었을 적에 거처하던 곳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으나 잊히지 않기에 여러 번 행차하였나이다. 산천은 완연히 예전과 같고 수목들은 울창해서 그늘을 이루었습니다. 쳐다보고 서성거리며 느껴보니 옛날이 생각납니다. 절이 허물어지고 기울고 좁고 누추하니 현 것을 고쳐 새롭게 하기를 사양하지 않으며, 단청까지 베풀고 토지와 종을 하사하여 부처와 승을 공양케 하였습니다. 이에 내 마음이 편안하니 아마도 전생인연이 정(定)한 것인가 봅니다.

이 낙성의 성스러운 법회에 의지해서 선조의 명령들을 천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정한 승들을 모아 법화경의 미묘한 뜻을 말하게 하니 글자마다 광명이라 참으로 모든 부처의 근본이요 귀절마다 1천 명의 중심이 됩니다. 일백 명의 승에게 가사와 바릿대를 주고 향과 등불로 정근하오니 삼보께서 자상히 비추시고 감응하여 주소서. 앞드려 원하나니 길이 업장을 녹여 없애고 참된 근원을 깨달아서 만법의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고 마음을 밝히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환상에서 진실한 상(相)을 증득해서 정묘부인(淨妙夫人)을 따르게 하소서. 길이 상서를 발해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고 국가의 기초가 끝없이 뻗으며, 중생을 무궁토록 전져주소서. 무릇 성정을 갖춘 이는 이익을 얻음지이다.²²⁾

3) 각림사의 쇠망

이렇듯이 태종의 비호로 아름답던 각림사는 언제 어떻게 폐사(廢寺)되었을까? 앞의 설화에서 각림사는 ‘빈대’ 때문에 망하였다고 하였다. 우리의 폐사설화를 보면 사찰의 대부분이 빈대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치악산 주변에서 채록한 다른 설화에서도 <개산절터>가 빈대 때문에 망했다고 하였다.

22) 위책, 같은 쪽.

“여기서 가까운 곳에 개산절이 있었대요. 근데 빈대가 많아 가지고요. 절 주지가 어디 한번 갔다 오니까 빈대가 기둥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주지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상대방 기둥이 전부 빈대 기둥이래요. 그래 하 무서워서 불을 쏘았대요, 빈대 죽으라고”²³⁾

횡성의 정금리에 있었던 개원사의 폐사 과정으로 보이는 이 설화도 빈대 때문에 절이 망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빈대가 끼게 되었는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²⁴⁾

그렇다면 빈대가 영험하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끼게 되었는가? 아니면 신령이 조화를 부려 빈대를 끼도록 하였는가? 여기서 빈대에 대한 이해야말로 각림사 성쇠의 문제를 푸는 열쇠에 해당한다.

조선조에 들어 불교는 승유배불정책으로 된서리를 맞아 고달프고 서러운 시집살이를 겪는다. 유생들이 공자의 사당을 중수할 때면 중들이 하는 일 없이 논다고 해서 동원하자고 결의하고, 관청에서도 부역할 일이 있으면 중들을 동원하였다. 강원도의 간성읍지인《수성지水城誌》에 보면, 진부령 길은 관에서 역승(役僧)을 모집하여 개시하였다. 또 아무때나 절간에 들어와 밥을 해내라고 명령하였으며, 종이나 위패목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였다. 게다가 말을 타고 법당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기생을 끼고 와서는 술상을 내오라고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고 범종이나 괘불 불사를 하면서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는 의식을 끼워 넣어보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피를 빠는 빈대같은 유생들이 수없이 달려들자 스님네들이 할수없이 절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므로 빈대 때문에 망한 각림사는 결국 유생의 등쌀 또는 승유정책 때문에 폐사하였다는 뜻이다.

우리의 속담에 “빈대 붙는다”, “빈대 같은 놈” 등의 속담이 있다. 이는 빈대의 속성이 그렇듯이 타인의 곁에 붙어서 노력과 재산을 축내는 존재를 풍자하는 말이다. 못된 유생들이야말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한 사찰에 기생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사찰경제를 마비시키고 마침내 폐사토록한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빈대’는 승유배불의 정책 아래서 승려를 멸시하고 사찰의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았던 못된 유생(儒生) 또는 사찰에 대한 억압정책을 주도한 유학자들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를 대변하는 자료 하나를 보자.

“방랑 김삿갓이 한번은 속리산 법주사에 이르렀다. 1런데 그곳 스님네들이 침통하니 말이 없는

23)치악산 주변지역문화조사, 강원문화연구(7집), 1987, 84쪽. 이는 개산절터가 폐사가 된 설화인데,《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인근의 사찰을 조사하여보니 횡성현 동쪽 28리에 있는 정금산(鼎金山)의 개원사(開元寺) 관련 설화로 보여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횡성현, 佛宇條)

24)간혹 보이는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절의 승려가 신도의 미색을 탐내어 계율을 어긴 때문에 빈대가 끼게 되었다고 한다. [서정강, 전설지, 한국국악협회 제천지부(1996), 57쪽]

지라 무슨 걱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스님이 마지못해 말하기를, 우리가 닥종이를 만들어 팔아서 겨우 연명하는데, 이웃의 양반 세력가인 구씨가(具氏家)가 종이를 만드는 족족 다 가져가서는 몇 년이 지나도 한푼도 주지 않아 극히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샷갓이 이르기를 “고을의 사포에게 왜 상소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이런 사정을 본군의 사포에게도 여러번 상소하였으나 같은 양반끼리라 그때마다 번번이 묵살되었다고 하였다.”²⁵⁾

이상의 이야기로 보듯이 종이값을 주지 않은 구씨네나 본군의 사포는 모두가 유학하는 선비들로서 사찰과 승려들의 권위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당대 사회의 풍조를 대변하는 부류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깊은 산골에 위치한 절이 빈대 곧 유생들 때문에 당했을 불이익이 어땠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한편, 구전설화에 의하면 각림사는 이름을 ‘강림사(講林寺)’로도 불렀던 것으로 전한다. 그것은 유생으로부터의 행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구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곧 그 옛날 태종 임금이 강무할 때 들러 불공을 드린 사찰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통해 사찰에 존엄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려던 것 같다. 이는 대구의 파계사(把溪寺)²⁶⁾가 살아남기 위해 애쓴 경우와도 일맥상통한다.

파계사에는 승유배불시대이지만 삼창주인 현웅 대사 때부터 경내에 선대왕의 위패를 모신 기영각(祈永閣)이 있어서 서슬이 퍼런 양반과 사대부가 위패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고, 또 기영각 때문에 절 입구에 ‘대소인개하마비(大小人皆下馬碑)’가 있어서 누구나 말에서 내려서 걸어들라와야 하였다. 따라서 파계사는 유생들과 관청의 행패 및 가혹한 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하마비를 세우고 왕의 위패를 모시게 연유는 이렇다.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던 조선조 숙종 때의 일이다. 전국의 사찰마다 부역과 유생들의 생때에 시달리고 또 관청에다 종지와 미투리를 만들어 바쳐야 하는 노역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천년 사찰인 파계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파계사의 삼창주인 현웅 대사(당시는 용파 스님)는 관의 부역과 유생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자 조정에 직접 탄원을 하여 바로 잡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장

25)김의숙, 김삿갓 구비설화, 2001, 푸른사상, 34쪽, 47쪽. 이 난제를 김삿갓이 한 편의 시를 써 줌으로써 해결한다. 곧 구씨네가 그 종이를 대동보 만드는 데 쓴 것을 알고 이러한 시를 지오보내었다. 法住寺僧徒造紙爲業 其造紙盡入於具氏譜紙 小譜紙有價況次大譜紙乎.(47쪽)

26)절의 좌우에 있는 아홉 계곡의 물을 잡아 모았다는 뜻을 지닌 파계사는 신라 애장왕 5년(804)에 심지(心地) 왕사가 창건하였고, 조선 선조 38년(1605)에 계관 법사가 중창하였으며, 숙종 21년(1695)에 현웅(玄應) 대사가 삼창하였다.

을 꾸렸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머리도 길러 술값 상투를 틀었고, 승복을 벗고 속복(俗服)으로 갈아 입었다. 승려의 신분을 속이고 한양에 입성한 스님은 어느 밥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탄원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때를 얻지 못하고 3년의 세월을 보내었다. 그래서 더 기다려 보아야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 날이 새면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때마침 숙종 임금의 그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승례문(남대문) 근처에서 파란 빛이 빛나는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임금은 내관을 불러 승례문으로 가서 기인(奇人)이 있을 것이니 찾아보라고 하였다. 어명대로 내관이 승례문 인근을 살살이 뒤지니 행색은 남루하나 인품과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한 사람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관은 이 사람이 바로 용龍자를 쓰므로 바로 그 사람으로 여기고 궁중의 어전으로 안내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가 꿈에 나타난 승려임을 알았다. 스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이제야 왔음을 알고 사찰의 참혹한 실정을 밝히면서 행패와 부역을 멈추어 주도록 간곡히 탄원하였다. 임금은 스님의 말을 듣고 그 폐해가 심각함을 깨닫고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임금은 스님을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였다. 그것은 왕자를 얻게 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왕에게 약속한 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삼각산 금성암의 농상(農上) 스님을 찾았다. 그리고 함께 왕자 잉태를 위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둘이서 똑같이 임금의 사주에 왕자가 없음을 알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농상은 입적하고, 숙빈 최씨에게 태몽한 뒤 왕자로 운회 환생하였다. 농상이 환생하여 태어난 왕자가 바로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이나 등극하여 있으면서 당파를 다스리고 학문과 예술의 전성시대를 이룬 영조대왕이다.

왕자를 얻은 임금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었다. 곧 용파 스님을 불러서 치하하고 현응(玄應)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그리고 파계사를 중심으로 40리에 걸쳐 나라에서 거두던 세금을 모두 절에서 거둬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정중히 거절하고 단지 경내에 선대 임금님의 위패를 모시도록 윤허하여 달라고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스님의 뜻대로 윤허하자 스님은 즉시 파계사로 내려와 기영각(祈永閣)을 짓고 선대 왕의 위패를 모시었다. 그러자 지방의 유생과 양반의 행패가 자연히 끊어지고, 양반과 사대부라도 ‘대소인개하마비(大小人皆下馬碑)’ 앞에서 모두 말에서 내려서 위패에 절을 하였다.²⁷⁾

27)이상의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파계사에는 전생에 농상스님이었다는 영조대왕이 11세 때에 썼다는 ‘玄應殿’이라는 편액이 성전암 법당에 걸려 있다. 그리고 지난 1979년에는 법당의 관음불상을 개금하던 중 불상의 복장에서 영조의 어의가 나와 그간 전해오는 설화의 신빙성을 하마비 및 어필과 함께 실제적 사실이었음을 믿게하여 준다. 파계사에는 숙종의 하사품으로 병품 2점과 구슬 2과가 있는 고찰이기도 하다. (한국의 명산대찰, 국제불교도협의회, 파계사, 341-2쪽)

파계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 남았다. 그러나 각림사는 왕이 강무시(講武時)에 들른 사찰이었으므로 왕의 권위를 환기시켜 봄으로써 유지하려고 한때 '강림사(講林寺)'로 이름을 바꾸어 보지만 결국 배불책(排佛策)과 유생의 행패로 말미암아 폐사한 수많은 사찰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만다.

3. <구룡 설화>에 나타난 불교와 이교도와의 갈등

1) 구룡사 연기설화

치악산 구룡사(龜龍寺)는 주변에 구룡(九龍)폭포를 비롯하여 구암(龜岩), 호암(虎岩), 용소(龍沼) 등의 경승지가 있는데, 신라 제 30대 문성왕 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구룡사의 창건사에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가 전승한다.

「1300여 년 전 의상대사가 구룡골에 절터를 잡았을 때 연못에 용 아홉 마리가 살고 있었다. 절을 지으려면 연못을 메워야 했는데 용들은 대사를 쫓아내기 위해 내기를 걸었다. 먼저 용들은 뇌성벽력으로 우박같은 비를 내려 산이 물에 잠겼으니 대사는 배 위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 차례로 대사가 연못에 부적 한 장을 그려 넣었더니 물이 말라 버려 용 하나는 눈이 멀고 나머지 8마리는 얼마나 급했던지 구룡사 앞산을 8개로 가르며 도망쳤다고 한다. 현재 구룡사에서 보면 동쪽을 향해 능선이 여덟 골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런 연유로 구룡사(九龍寺)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구룡사의 사세가 기울어졌을 무렵 거북바위가 절의 길목을 막으므로 주지가 부득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 혈을 꿰었으나 이후에 거북바위를 살린다는 뜻에서 아홉 九자를 거북 龜자로 바꿔 구룡사로 부르게 되었다.²⁸⁾

이 설화를 보면 처음에 절을 짓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용들이 살고 있었으며, 대사가 도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도량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홉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2) 용 퇴치의 양상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에 있는 가지산 보림사는 산과 골짜기가 깊고 물이 휘감아 돌아 흐르며 지세가 넓고 평탄한 명당에 건립된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는 절을 처음 세울 때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28) 위책, 구룡사조, 122쪽.

「절을 지으려 할 때 항거하는 용을 퇴치한 후 흙을 파고 모래를 날려와서 깊은 연못을 막고 채웠다.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푸른 파도가 변하여 평지가 되었다. 그래서 십육나한의 성스런 몸을 조성하여 서쪽 물 속에 안치하여 그 물길의 드셈을 진압하였다. 그 도량을 살펴보건대 동서남북이 넓어서 별 사고 없이 천불을 안치할 만한 땅인지라 드디어 부지를 측정하여 동서법당을 지어 ... 가 지산 보림사라 했다.」²⁹⁾

여기서도 항거하는 용을 퇴치한 후에 절을 지었다고 하였다. 또 이와 동계의 것으로 금강사 유점사의 연기설화가 있다.

「외금강의 옥류동(玉流洞) 계곡이 끝나는 곳에 암벽을 낙하하는 82m의 폭포가 있으니 바로 구룡폭포이다. 구룡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못이 있으니 구룡연(九龍淵)이다. 여기에는 지금도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한다.

옛날에 신금강의 유점사터에 있던 연못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그때 인도의 53불³⁰⁾이 금강산을 인연의 땅으로 삼고 안좌하기 위해 월씨국을 거쳐 해금강의 패종암에 머물다가 외금강으로 해서 유점사터에 이르렀다. 그때 나라에서는 왕명으로 53불을 모시기 위해 유점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용들이 버티고 있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부처의 힘을 빌어 연못의 물을 끓게 하니 용들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 구룡연 속으로 침병침병 뛰어 들었다. 지금도 구룡연에는 그때의 용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³¹⁾

유점사의 연기설화에서는 부처가 연못의 물을 끓게 하자 용들이 뜨거움을 피하여 구룡연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구룡사의 설화는 용들이 연못의 물이 말라 살 수 없음에 산을 가르고 도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9)하바드대학 연경도서관에 소장된, 15세기에 작성된<보림사사적기>에는 지세와 절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산과 골짜기가 깊숙하고 물은 돌아 흐르며 구름은 꼭 끼었고 지세는 넓고 평탄하여 당료(堂寮)가 구비되고 법려들이 무리를 이루니 그 모습이 상서롭고 빛을 놓아서 불림(佛林)의 별세계이며 금모래인 보배로운 땅이라 절을 ‘보림’으로 한다.”

30)53불(佛)은<무량수경>에 등장하는 과거불들이다. 곧 과거세의 정광여래로부터 법장보살(후에 아미타부처가 됨)의 은사인 세자재왕불 이전의 부처인 처세여래까지의 53불을 가리킨다.

31)김의숙, 그리운 금강산 이야기, 북스힐, 1998, 46-7쪽

3) 용의 정체

그렇다면 여기서 불력(佛力)에 의해 쫓겨가는 용은 누구라는 말인가?

용은 용안(龍顏)이나 용상(龍床)에서 보는 바대로 ‘임금’을 뜻하거나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상징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용은 이단적인 불교세력 혹은 기존의 토착신앙 세력인 이교도(異敎徒) 혹은 이단적 불교 결사체로 보아야 한다. 영주 부석사의 창건설화를 보면 구체적인 해답과 만날 수 있다.

「모든 공부를 끝낸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가 전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의상은 귀국 길을 서둘렀다. 그리고 그간 자기를 돌보아 준 문등현의 신도 집에 들러 사례하고 곧 배를 타고 떠났다. 마침 선묘는 출타 중이었는데, 의상이 배를 타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해 둔 법복과 생필품을 함에 가득 담아 들고 선창가에 도착하였을 때는 배가 저 멀리로 떠나가고 있었다. 배가 멀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선묘는 주문을 외었다. “나의 참된 본심은 법사를 공양하는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이 함이 저 배에 닿기를 축원하옵니다.” 그리고 함을 물 속에 던졌다. 때마침 강풍이 불더니 새털을 날리듯 함을 의상이 탄 배에 닿게 하는 것이었다. 선묘는 또 맹세하였다. “내 몸이 변해서 대룡(大龍)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저 배가 무사히 신라 땅에 닿아 스님이 법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비옵니다.” 그리고 선묘는 바다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 원력이 굽힐 수 없는 것임을 알았던지 신령이 감동해서 과연 용이 되었다. 용은 떠올랐다 혹은 잠졌다 하며 그 배를 부축하므로 의상은 무사히 신라의 바다에 도착하였다.

귀국 후에 의상은 법륜을 굴릴 만한 곳을 찾아 산천을 두루 살피다가 영주의 봉황산에 이르러서야 천하의 대지를 찾았으나 거기에는 이교도인 ‘권종이부(權宗異部)’가 500명이나 모여 있었다. 그때에 항상 의상을 따라다니며 지키던 용이 의상의 마음을 알고 허공에서 대신변(大神變)을 일으켜 큰 바위로 변하였다. 바위는 너비가 1리나 되어 가람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하니 소승에 집착하던 못 승려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의상은 이 절에 들어가 겨울과 여름에 화엄경을 강(講)하였다. 특별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³²⁾

영주 부석사는 의상이 중국 장안의 종남산에 있는 지엄삼장(智嚴三藏)에게로 가서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와 화엄종찰로 세운 사찰이다. 이 절을 세울 때에 그 자리에는 이미 이교도인 권종이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의상대사의 수호용(守護龍)이 된 선묘(善妙)라는 여인의 원력으로 절을 창

32)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 당신라국(唐新羅國) 의상전(義湘傳).

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곧 선묘의 화신인 용이 부석이 되어 이교도인 '권종이부' 5백인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³³⁾

이와 마찬가지로 보림사, 유점사, 구룡사가 모두 본래부터 살던 용 곧 이교도 혹은 이단을 쫓아내고서 그 자리에 절을 창건하였다. 유점사는 용을 쫓아내기 위해 불력(佛力)을 빌어 연못의 물을 끓게 하였고, 구룡사를 창건하기 위해서는 대사가 부적을 던져 물을 마르게 하므로 용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축출의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설화에 의하면, 치악산 구룡사는 본래 이교도인 토착신앙단체 혹은 이단적인 불교 결사체의 신성공간이었던 곳에 절을 창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기시합을 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두 세력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설화는 민중의 정서로 각색되거나 윤색된 이야기이지만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다. 따라서 설화를 포장하고 있는 상징과 은유를 벗겨낼 때 사실과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치악산 주변에 전승하는 구전설화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설화 4편을 통하여 치악산의 불교사회사에 접근하여 보았다.

첫째,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치악산에 은거한 원천석은 치악산 각림사를 방문한 이방원과 관련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원주를 본관으로 하는, 인구에 회자하는 절의(節義)의 유학자이며 동시에 불교적 지성인이었다. 운곡은 주변의 승려와 교유를 갖고 왕래하고 문답을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불교시편을 창작하여 남기었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운곡은 배불정책이 난무하던 조선조에 사찰이 유생들에게 수난을 당할 때 그 명성으로 하여 태종 이방원과 더불어 어느 정도는 치악산 불교사회를 버티게 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33) 지금 영주 부석사에는 그때 떠다녔다는 '부석(浮石)'이 있고, 무량수전 밑에는 석룡(石龍)이 묻혀 있다. 무량수전 뒤쪽에 선묘를 모신 선묘각(善妙閣)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쁘게 그려 모신 선묘상이 있다. 또 절 동쪽에는 선묘정(善妙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예전에 가물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용은 수신(水神) 곧 비를 담당하는 신격이지만 불교에서는 불법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설화에서는 실패한 사랑담의 여주인공이 화엄법을 수호하는 신격, 나아가 부석사의 화재를 방지하는 액막이신으로서 승화되어 있다.

둘째, <평 전설>은 한때 탐욕의 상징적인 존재인 구렁이로 변할 정도로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던 승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설화상의 암수 구렁이는 범종을 조성하기 위해 시주 받은 재물 중에서 반을 떼 내었을 뿐 아니라 공양주 보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주지와 그 보살이다. 그들은 종이 울리지 않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을 등장시켜 종을 울리게 한다. 이는 민중이 자비심을 발동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메시지에 해당한다. 마치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빠져 죽었을 심청이를 다시 연꽃으로 살려내어 영원히 장님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비심의 발로에 해당하는 메시지와 같은 구조의 문학이다.

셋째, 각림사에 대한 설화는 지금의 안흥면 강림리에 있는 각림사가 태종의 원찰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찰이 크게 흥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불정책과 '빈대'로 비유되는 유생들의 행패 때문에 폐사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사찰사(韓國寺刹史)의 비극적 결말을 담고 있다.

넷째, <구룡 설화>는 구룡사를 창건하기 위해 본래 용이 살고있는 연못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려고 그 용을 쫓아내었다는 연기설화이다. 본래 구룡사터에는 아홉 용이 있었는데, 의상대사가 도력으로 연못을 마르게 하여 용 하나는 눈이 멀어 남고 나머지 여덟 용이 달아나면서 앞산을 찢고 달아나는 바람에 능선이 여덟 골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때의 용은 누구일까? 그 용은 부석사의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권종이부'(權宗異部)에 해당하는 이교도 집단이다. 결론적으로 <구룡 설화>는 무속과 관련된 토착신앙단체 혹은 이단적인 불교 결사체가 선점하고 있던 신성공간에 구룡사가 창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며

이 용 욱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며

이 용 옥 (복원문화역사연구소 소장)

인 사 말

인류의 역사가 종족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씨족, 부족, 집단으로 형성되는 국가사회로 이어지면서 모든 만물을 신앙으로 알고(현재 인도 사회와 같다.) 살아오던 민족이 372년(고구려 소수림왕2, 순도, 아도 등이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왔다는 문헌) 불교문화가 들어오면서 대단위 종교로 시작하여 그 뿌리가 내려진 것이 오늘날 우리민족의 역사를 쌓아주면서 꾸며주며 그 자취를 남겨 놓았다. 그 이후 설화 등 전설이 口碑(碑)文化의 미담으로 기틀을 마련하여 놓았으나 이제는 이것을 實體(實體)學文으로 연구하고 밝혀서 다져놓을 때가 된 것 같다.

그것은 꿈같은 정신 세계를 수탈하여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집중시켜 왔기 때문에 구전(비)이나 설화로서 미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과학적 실증적 학문, 학술적 생활문화의 시대에서는 학문적 가치가 학술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교문화의 역사의 흐름이 설화나 전설로서 구전(비)문화로 된 것이 불필요하였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 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화(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자취에서 살필 때에는 우선 正史와 野史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전설(설화)과 기록문헌을 함께 살펴야 하는 학문적 시대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불교문화는 조상들의 민족적 생활 양식으로 역사와 더불어 삼국 전체로 이어 왔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역사로 그 자취를 남겼으므로 이와 함께 살필 때 이 고장 불교문화가 더 한층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오악 중에서 치악산을 동악으로 하여 국사와 더불어 제사하면서 그 불교문화를 더

발게 남겨놓았으니 뚜렷한 사료(寺料와 史料)수집으로 학문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관으로 불교문화를 살피게 되는 이 때에 주최자, 주관자와 후원자에게 한층 감사하고 더 더욱 고마운 것은 주제 발표자로서 참여하신 각 대학 교수에게 또 한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기회에 뚜렷한 고증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선 이 구룡사의 창업 연대부터 불교역사의 흐름이라고는 하나 설화나, 전설의 구전문화는 아름다운 역사의 미담으로 두더라도 창업 연대와 같은 기록은 문헌과 맞추어 놓는 것이 후학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좋을 듯싶다. 안내판에 보면 서기666년, 또는 668년에 의상조사가 이 절을 창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때에는 의상대사가 661년에 당나라로 수행을 떠난 후이며 671년에 귀국한 것으로 문헌에 있으니 양양 낙산사와, 봉화 부석사와, 이곳 치악산의 영원사 창업 연대를 살펴보다도 모두 676년으로 기록이 있고 의상대사의 업적으로 원주의 비마라사 등 십대사찰 창업 연대를 살펴보면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것부터 기록 연대의 오류가 아닌가 싶으며 이 사찰 기록 연대를 쓸 때에 676년을 666년으로 기록하지나 않았나 싶다. 그러므로 이제 치악산의 불교문화의 자취는 이 나라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진 '高麗의 苗床址'로 사료를 살피는 이때 더욱 필요하므로 추후에 各設하겠고 주제발표에서 관계 있는 각 사찰만 가, 나, 다, 순으로 더듬어 보면서 주제발표의 토론에 접하고자 한다

치악산 불교문화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本 研究所에서

1. 문헌으로 살펴 본 각림사

각림사는(줄이고)원성 치악산 동쪽에 각림사가 있다. 처음에는 두어 칸이 초가로서 숲 가운데 있었는데 태종이 어린 날에 향시 와서 쉬었다 갔다. 절 남쪽 3,4리 밖에 용추가 있고 그 위에는 바위(대암)가 산 밑으로 있는데 태종대왕이 그 위에서 책을 끼고 읊은(공부를 한곳)것이다.

覺林寺는 (전략)原城雄岳山之東 有覺林寺 其初數間茅舍 蕪沒於林藪之中 獻陵龍潛之日 嘗往來棲息 寺之南三四里之許 有龍湫 其上有臺巖 依山而立 獻陵有時挾冊 吟詠 於其上

등극후 에 특명으로 절을 고치고 큰 사찰이 되니 주민이 이 바위를 태종대라 하였다. 임진년 왜적의 난에 절이 다 탔으니 바위(대암)만 우뚝 서있더라

登極之後 特命改構 遂爲巨刹 而居民 以巖爲太宗臺 壬辰之 倭賊之亂 寺盡焚蕩 而臺巖 猶屹立焉

(사찰사전, 동국여지승람, 대동야승)

태종10년12월에 주지 석초 스님이 내려온 원주 각림사는 임금이 어렸을 때 있던 곳이며 이 절에서 독서를 하였다 (이하생략)

太宗10年 (庚寅=1410)12월,壬子(20일) 降旨于 原州覺林寺 上之在潛邸也 讀書是寺 僧 釋超以住持 (태종실록)등 下略

* 문헌에는 태종대왕이 어린 시절 글을 읽었으나 황폐한 옛 집 두어 칸 있으며 스님 釋休가 태종을 보살폈다.1410년12월 석초를 주지로 임명했다,1412년 10월에 원주목사와 승정원에 명하여 田稅를 받아들였다. 1416년(태종16)4월에 중창.1417년 3월5일 태종 행차. 9월15일 낙성법회에 옥천 부원군을 대신 참여토록 하고 "화엄경"을 보내 봉안하고 황고와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다 1592년 선조25년에 소실했다. 그러므로 아마 승병의 대세시대로 보아 그래서 소실된 것이 아닌가 싶다

1-1. 태종대왕의 자취는 靈泉寺에도 문헌에 있는데

靈泉寺=강원도 원주군에 있다 주, 동북 5리 허에 영천사가 있는데 태종이 어린 때에 향시 투숙하고 쉬었다.(이하 중략) 절이 허물어진 것은 몇 해인지 알 수 없으나 삼층탑이 그 자리에 지금까지 서있다.

在 江原道 原州郡 *州之東北五里許 有寺曰靈泉 獻陵(태종)龍潛之日 嘗投宿棲息 (중략)寺之廢壞 不知幾年而 三塔兀(움직이지않을을)然 至今猶存 (대동야승14, 송와잡설56, 사찰사전)

문헌에 영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고려때창건, 러말에 나옹혜근이 1320-1376까지 머물렀으며 혜근이 1388년입적, 혜근의 사리탑이 있다.1592년 임진왜란 시 전소했다(보제존자 사리탑 보물 제 358호)

이때를 살피어 보면 김제갑 장군이 (1525년 중종20년-1592년 선조25년) 원주 목사로 재임중이었는데 임진왜란을 맞아 倭將 모리(森 吉成)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관병 의병과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그의 아들 時伯과 부인 이씨도 순절한 것으로 문헌에 있으니 이때에 아마도 승병이 많이 머물던 것이 원인이 되어 각림사와 같은 시기에 영천사도 소실된 것으로 본다.

* 태종대왕은 어릴 때에 원주 영천사에 머물렀음이 확실하고 일설에는 태조대왕의 왕비인 神懿

王后(韓敬敏의 女)가 원주 靈泉寺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린 태종대왕도 같이 예불을 하며 잠시 머물렀었다는 설이 기록과 일치하고, 여기 이곳의 덕망 높은 학자로 원천석 선생이 傳谷(스승골, 지금은 가마골[釜谷]이라함)에 있다는 설을 듣고 草幕으로된 覺林寺를 찾아가서 신의왕후는 불공을 들이고 이방원(태종대왕)은 원천석 선생으로부터 공부를 하였다는 설이 있다(형성군의 향토사가 前교장 최성침).

1-2. 元天錫 선생의 행적으로

행적에서 현재 가평군 외서면 대곡리(前 楊近面 三會里 禾野山 峽谷)에 운곡암(사)이 있다

그곳 비석에 보면 佛事序文에 盖聞而視에 元亨利貞은 乾之德也오. 常樂我靜佛之德이라. 無然이면 無德이요 不因이면 無緣이되 是故로 東崇明勝金剛山落脈之下 加平郡外西面三會里 耘谷庵의 歷史는 1380년에 雲谷先生이 勑 建後 (이하줄임)

1392년7월에 고려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순위한 그 후 1399년定宗에이여 1400년11월에 太宗大王이 登極하면서 軍士를 풀어 찾아온다는 消息을 傳해듣고 다음해인 1401년1월1일에 雉岳山 入山했다 (1441년 1월1일 치악산 입산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 연대는 태종대왕이 1400년부터 1418년까지 재위 기간이었으므로 본 연구소에서 맞추어 정리한 것이며 杜門洞으로 들어간 七十二賢 忠臣中에 그 한 사람인 것은 確實히 말하고 싶다 (태종대왕은 1367-1422승하)

그리고 碑文의 原因이란 기록에 原州元氏天錫號 耘谷先生은 高麗朝 末葉에 世間에 어지러운 國政과 險惡한 民心을 悲觀하사 諸官職 및 모든 벼슬을 礁芥같이 마다하고 楊近땅 절골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草幕을 依支하고 草屋間을 마련하여 佛堂을設置하고 佛事에專念하시어 隱居生活을 하셨다는 내용이 그 비문에 나타나있고 그 비문 뒤에는 이 耘谷寺는 初代 1380년 元天錫先生始建 1441년 퇴거 치악산입산이라 하였으나 1401년 1월1일 退去하여 雉岳山으로 入山하고 1441년까지 廢寺되였던 시기도 원천석의 在庵으로 기록한 것 같다.

(서기1441년1월1일은 세종23년이니 이때에 입산이라 기록한 것은 오류가 확실하다)

二代1441년 住持 羅淸皓 1461년 入寂이라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17대 이하래 스님으로 계대를 하고있는 것이다.

1-3. 운곡암 大雄殿 懸板에는

雲谷庵記=此寺 勑 立 麗末李朝初 有原州元氏耘谷先生 隱於蘇也.

이 절의 창립은 러말 이조초에 윤곡 선생이 은거한 蘇(복생)이다

山模以 夷齊不食 李黼採薇 代祿守靜不出

산의 형세대로 중국의 백이숙제도 먹지 않던 나무껍질과 고사리를 캐어 대륙을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大駕幸尋光武因 討不退 以 効陵上歡不已 勅(위로할래)以本 倅(원[郡]쉬)命給材料 精築庵子 此 右賜之物也

여가가 행차하여 찾으며 물러나지 않고 헌능 上(임금을 뜻하는 것 같음)이 기꺼이 몸 사리지 않고 위로코자 원을 명하여 재료를 주고 암자를 지은 것이 이 우측에 있다.後에

民尊其寺稱大谷之稱 王訪谷 名其寺稱 雲谷庵

모두가 그 절 있는 곳을 대곡(현재 대곡리라함)이라 칭하기도 하고 왕이 방문했다 해서 왕방곡이라 칭하기도 하며 구름이 짙은 골이라 해서 雲谷庵이라하였다.

然風霜閱歷 文獻無山中 鳴嘯惜哉

그렇게 몇 해를 지냈는가 산중에 문헌이 없으니 애석하도다.

大久此寺廢而復修移于 內谷中修則 吏部尙書 李公蘭石 常特住持 韓僧長悟 後復舊基則 山下有志 洪性復 邊元變 另(다를령)主 嚮(香草堂)立 兪(다침)意 循洞 遠近相助 與法師 李俊九大師 李明九大師重建營築遂成竣工 主今傳守以敬以 誠府尊獻 貢明有靈神 神有濟衆浩弘之澤萬歲 無彊牙 恐聖 誣無 添刹語略斯以 現在 六百十年餘哉 李匡世 謹書 住持李雲憬

오래 이 절이 폐사 된 것을 다시 수리하고 협곡을 닦아놓으니 이부상서 이란석과 주지 장오가 다시 복구한 이후에 산하 유지들이 향대를 세우자 뜻을 다하여 서로 도우니 두 대사가 중건하여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신령을 받들었는데 이제 신은 큰방에서 만세무강을 누리소서. 聖誣人은 두려움이 없이 이로써 사찰의 약력을 적었으며, 현재 610여 년이고 이광세는 삼가 썼노라. 주지 이운경 辛丑年(서기1901년)十月 日

그러므로 이 비문 내용으로 보아 원천석 선생은 雲谷庵을 짓고 이곳에서 살다가 태종대왕이 등극 후에 군사를 풀어 탐색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원주 치악산으로 입산했다는 기록으로 더듬을 수 있으며 그 후에 雲谷庵은 원천석 선생의 號를 따라 耘谷庵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다. 이 사찰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경기도까지 시 군과 사찰이 나타나있으며 원천석은 일생 進士로서 마쳤는데 御駕와 충신으로 성립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구룡사에 대한문헌은

2. 龜龍寺는 在 江原道 原州郡 雉岳山 有龍淵 禱雨輒(오로지침)應(범우고)
州東 三十里(가람고)

在原州郡 雉岳山 大本山 月精寺 末寺(태고사 사법)

문헌에 九龍寺는 668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했다, 827-898년에 烟起道說이 머물렀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1327-1405년에는 無學自超가 머물렀으며 1520년부터 淸虛休靜, 등 큰 스님이 1592년 임진왜란 이후 1604년까지 머물렀었다는 문헌으로 보아 영서지방의 수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사세가 기울자 龜龍寺라 했다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연기도선=자는 옥룡자, 성은 김씨(강씨), 朗州(영암)구림촌 사람이다, 841년 15세에 출가(정감록)

자초무학=麗末 朝初 중국 구법승, 성은 박씨. 당호는 계월헌, 1327년 9월 20일 합천 태생 18세에 출가.

휴정청허=조선 중기의 승병장이다. 호는 청허, 서산, 자는현웅, 성은 최씨 본관은 완산, 33세에 승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자 승병장 騎虛, 靈圭등이 청주 등을 탈환하는 것을 보고 묘향산에 있던 그를 불러 八道十六宗 都總攝으로 간곡히 부탁하자 7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격문을 돌려 전국에서 승병 5000여 명을 모으고 총수가 되었다. 대웅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24호, 普光樓, 三聖閣, 尋劍堂, 設禪堂, 寂默堂, 天王門, 一柱門, 鐘樓, 局司壇이 있다. 조선시대 세워진 '황장금표'가 있는데 이것은 치악산일대 무단벌채를 금하는 '방'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에 지금의 절터는 의상대사가 부적 한 장으로 물을 끓이자 용 아홉 마리 중 한 마리는 눈이 멀어 못 갔고 여덟 마리는 동해로 도망을 갔다, 설과 일설에는 한 마리는 거북이가 등에 업고 세렘폭포로 갔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九龍寺가 龜龍寺로 되었다는 설화도 있고 참고 문헌으로는 이 가람 창립이후에 임진왜란 당시 이 치악산 각림사와 영천사와 구룡사가 같은 연대에 소실되었었다는 문헌이 있으니 여기에서는 이 설화와 전설 등과 실록 문헌 등을 같이 수집하여 연구하면 재미있는 구전문화에 견들여 연구할 수 있는 구룡사라 하겠다.

상원사는 문헌에.

3. 上院寺는 재강원도원주군치악산 * 俗傳 瑱(막힐진)龍湫建庵 至今大泉湧出廚下 石上有血 痕

馬跡 居僧指爲龍馬跡 古人有詩曰 古石血新騰馬跡 微瀾香動蟄龍泉 是也재 * 在原州郡神林面雉岳山 大本山月精寺末寺

용추에 암자를 세웠고 지금도 주방 밑에 샘이 솟고 있다. 또한 바위 위에 혈흔과 말 발자국은 중이 살면서 용마의 자취를 가리킨 것이고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석에 용마가 오른 피자취가 있으며 작게 흐르는 물결에 움직이는 벌레도 없는 용천이 있으니 이것이다. 재 원주군 신림면 치악산 대본산 월정사 말사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원사를 답사하면서 그곳에서 목판에 조각된 참고자료를 얻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더 소개하고자 한다,

上院寺 1)소재지;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

2)건립연대; 1400年前 無着祖師가 창건이라고 하나 최근에 신축한 것이다

3)유물;三層石塔 石佛光背

4)參考資料

雉岳山 上院寺 事蹟記

夫 新羅敬順王師 无着祖 自唐禮 東來入五臺山禮敬 文殊大聖 願乞安禪之地

무릇 신라 경순왕사 무착조사는 당으로부터 예를 배우고 동쪽 오대산으로 와서 문수대성에게 편안히 禪 닻을 장소를 원했더니

文殊大聖指示此處 俾 安禪居手植桂樹至今尙存 而新羅之末 道詵神師入唐

문수대성이 이곳을 가르쳐주었다. 禪 닻을 곳에 계수나무가 지금까지 있는데 신라 말 도선신사가 입당하여

謁一行法師學地理之妙法 東還之日獻東方山水圖則 一行法師覽圖圈 點其三千八百逮以寺刹 而壓已地脉 以爲立塔則 戰爭自息統合三韓云 道詵神師歸來 逮寺塔於諸處鎮壓 國脉 禪補地勢 盖此本寺基地息 東方第一之處也

법사일행이 지리의 묘법을 배우고 돌아와서 날마다 동방의 산수도로 법사 일행이 도면을 열람하고 삼천 팔백 중 그 사찰 자리의 점을 찍었는데 지맥을 누르고 탑을 세우면 전쟁이 스스로 종식되고 삼한이 통합되리라. 도선조사 돌아와서 여러 곳을 누르고 사탑자리를 잡으면 나라에서 禪을 도

올 수 있는 지세이니 이에 본 절터 서식지로 동방에서 제일가는 곳이다

懶翁和尚來留 降龍之鉢 无學國師 憩息解虎之錫 无學祖師歌曰 雉岳山兮

나옹화상이 와서 머물며 용마의 자리에 바룻대를 내리고 무학국사는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에 쉬면서 이게 치악산이라 읊더라.

眞 仙境上院寺兮 定 禪宮三魚石兮 助 陽址獅子石兮 寺擁護 此二龜石 靈氣兮

진산은 상원사가 선경이고, 정한 선궁은 넓을 돌에 삼어석 (넓은 돌)이로다. 양지에는 사자석이 돕고 절을 감싸는 것은 여기에 두 거북돌의 영기가 있도다.

秀寺前顏臺 有龍血蹄 此以无着祖師 騎龍往來之處也

절 앞 안대는 뻐어나고 용마의 피자국이 있으니 이는 무착조사가 용마를 타고 왕래한 곳이더라

然妙則 水麗山門 左右擁抱東向 見옥(미상)臺 西指世尊臺 南有金仙臺 北望毘盧예(垓 성각휘예) 率靈異淸淑之氣 上院之大觀也

그렇게 묘한 곳에 산문이 수려하고 좌우가 동향으로 감싸니 좌대를 보면 서쪽에는 세존대를 가리고, 남쪽은 금선대가 있으며, 북향을 바라보면 비로봉의 성곽 있으니 다 영산의 청숙한 기운이 달리 상원사의 대관(사물의 전체, 크게 바라보인다)이로다.

自无着公 以後興廢 相尋茸修相繼 懶翁之重建 卽我聖上 開國之初 月峰之重茸

무착공으로부터 폐허한 이후에 서로 찾아 중수하며 이어오기를 나옹(혜근 1320년-1376년)이 중건하고 우리 성상 개국 초에 월봉이 지봉을 덮었다.

참고

* 혜근나옹=고려공민왕 때의 왕사. 속성=牙씨, 호=江月軒, 영덕사람, 1320, 1, 15. 출생. 1339년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출가하였다.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증홍조풍복국 우세보세존자. 호로서 송광사의 주지가 되었다 지공무학과 함께 삼대화상으로 불리우고, 신흥사에서 죽었다. 부도는 회암사에 있다.

* 조선 명종때=柳永吉. 1646년 그 아들 恒이 월봉집을 편집했다.

여기에서 무착대사의 행적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다시 반복해서 살펴본다.

첫째 줄에 상원사의 건립연대는 지금부터 1400년 전이라 하였으니 그 상원사 창업 연대는 600년 경이 된다. 그리고 이번 주제발표 내용 중에도 상원사는 의상대사가 창립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충청북도지와 제천군지에서 얻은 재료에도 보면 제천군 고암면 감악산에 있는 백년사는 66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는데 그 후 효소왕 원년(692년임진년)에 큰 비가 와서 파멸된 것을 80년 후인 신라 41대 헌덕왕 11년(819년 기해년)에 무착대사가 세웠다는 기록문헌이 있다. 그러므로 신라 말 경순왕사 무착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상원사에서 받은 현판문헌은 의문점이 많으며 현재 상원사 주지인 敬憲 스님의 말하는 신라 말 경순왕사 무착대사의 창립으로는 계속 연구자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년사 안내문에는 918년 경순왕사 무착대사가 창건했다고 하였는데 918년에는 왕건의 건국 연대이며 경순왕사 무착대사로써는 상원사의 기록밖에 없고 상원사 창업 연대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연구할 수 밖에 없는 자료이다.

이하는 상원사의 중수연대를 살펴 놓은 것으로서

* 嘉靖(明세종23년)甲辰(中宗39年 서기1544년)之歲 偉學之重修 乾隆(清고종3년)戊午(영조14년 서기1738년)之歲 靜岩之修莊 乙巳(건용50년정조9년서기1785년)春也 星霜屢換雨頽이(圯홀다리 이)及 夫 癸亥(淸가경8년 순조3년서기1803년)秋 海峰師 祐政募緣 鳩財繼以重修 光緒戊子(淸덕종 14년 고종25년서기1888년)之歲 三空法能得施重修 於連代 相尋之記 不忘有功云 x甫

공을 닦는 대시주 김영근 순찰사와 장자 김병완과 그 손자 김병득, 둘째 김병승과 손자 김응려는 생전에는 수복장수하고 이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노라.

有功大施主 巡察使 金公癸巳生泳根 長子金戊午生炳完 孫金庚得, 次子金己未生炳乘 孫金應龍 生前訴願 修福長壽施後 往生極床之.

라는 현판의 기록이있다

이하는 주제발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주사에서 주관하는 동악제당의 산신제에 관련된 국향사의 본뜻과 이에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따로 사료로서 발표 하고자 한다.

다음 석남사도 문헌에는

4. 石南寺는 재강원도원주군치악산 * 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以事 使 畧地 於是 出宿雉岳山石南寺 行襲酒泉 柰城 鬱島 御珍等縣 降(항)之(삼국유사)라는 문헌이 있으므로

본 란에 관하여 1)세달사의 위치

2)세규사의 위치

3)비뢰성의 위치

4)양길에 대한 인적사항 도적과 대장군과 도원수의 명칭에서

5)궁예의 사인과 자손들의 계보관계

6)견훤의 戰跡과 연혁에 대하여

7)경순왕의 행적관계로서

이하는 양길과 궁예의 역사로 이어진 사료이므로 다음에 더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5. 鵠原(鵠)寺는=원주군 치악산 주동 30리 * 원주군 신림면 치악산 대본산 월정사 말사

(추후에 기록문헌의 사료로 발표하겠다)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高麗(KOREA)의 발상지(묘상지)인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의 불교문화에 대한 사료를 토론했던 것으로서 더불어 신림면 성남리 석남사의 역사를 추론으로 두면서 줄이고자 합니다

6. 黃山寺의 재료를 별첨 찬문으로 문헌을 드리면서

7. 黃山寺는 재원주군귀래면주포리신대동 미륵산동면상복 석원잔존 와편산재 유미륵당재산절 정 착일대암벽 조미륵불상 (사탐고죽고)

이상과 같이 주제발표에 대하여 토론으로 정립하고자 하며 이런 기회로서 구룡사의 연대도 문헌으로 정립하여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단 이미 기록 연대에서 정립이 힘이 들면 註로서 정립하고 첨문하는 형식으로도 가할 듯한 주제로 보는 것이 이 주제발표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原州 法泉寺・居頓寺・興法寺 考察

박한설

原州 法泉寺・居頓寺・興法寺 考察

박한설(강원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序 論

1)法泉寺・居頓寺・興法寺는 현존 유물로 보아 新羅時代에 창건된 유구한 사찰로 생각되는데 세 절 모두 廢寺된지가 오래되고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서 절의 창건과 역사를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다.

1530년(中宗25)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 原州牧 佛宇條에는 세 절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나 1834년(純祖34)에 간행된 靑邱圖에는 세 절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壬辰 戰亂 중에 함께 소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그러나 현재 이 세 사찰에 관계된 유물·유적은 國寶 3점, 寶物 6점, 史蹟 1件, 文化財資料 2件이나 되고 또 그 유물들이 智光國師、圓空國師、眞空大師 등 최고급 승려들의 것이어서 이들 세 寺刹이 歷史的으로 유구할 뿐 아니라 韓國佛教史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原州地域의 佛教上的 비중도 대단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3)이는 原州 地域이 新羅시대에는 北原京이 있었고 高麗시대에는 “府” 또는 “牧”이 있었으며 朝鮮時代에는 500년 동안 觀察使 소재지였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經濟的、文化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과 부합되는 것이며 이로써 과거 우리의 佛教中心時代

에 이곳에 많은 중요사찰이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즉 과거 地理誌를 보면 原州에는 法泉寺·居頓寺·興法寺 외에도 覺林寺·桐華寺·文殊寺·天王寺 등이 있어서 다른 고을에 비하여 많은 사찰이 있었으며 또 오늘날에도 雉岳山에 九龍寺와 上院寺등이 있어서 江原道 佛教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확신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이제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기록과 현존하는 유물들을 통하여 법천사 거둔사·홍법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法泉寺·居頓寺·興法寺의 寺刹名稱

오늘날 사람들이 寺刹을 이야기할 때에 寺刹의 名稱에 대하여 無心히 넘기는 경향이 있으나 원래 寺刹名稱은 그 절의 信仰의 성격을 뚜렷하게 표시하는 수가 많으니 예를 들면 “彌勒寺”는 “彌勒”을 모시는 절로서 그 절은 “彌勒信仰의 道場”이라는 뜻이며, “彌陀寺”는 “阿彌陀佛”을 모시는 절, “帝釋院”은 帝釋天을 모시는 절, “四天王寺”는 四天王을 모시는 절, “도牽庵”은 도牽天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절, “觀音窟”이나 “文殊院”은 관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을 모시는 절, “普賢院”이나 “地藏庵”은 보현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모시는 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에서 세 절의 이름을 살펴보면 법천사와 홍법사의 “法”은 “佛·法·僧” 三寶중 “法”과 관계 있는 이름, 즉 부처님의 “思想”, 불교의 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興法寺”는 “法을 일으키는 절” “法이 일어나는 절”의 뜻이며, 法泉寺는 “法의 源泉인 절”, “法이 흐르는 절”의 뜻이다. 그리고 居頓寺의 “頓”은 “頓悟漸修의 “頓”이니 “문뜩”, “갑자기”, “돌연히”, “단번에”, “찰나” 등의 뜻으로 “頓悟”는 “돌연히 깨닫다”, “단번에 깨닫다”가 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하다”(漸修)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居頓”의 “居”로 보아서 “居頓”은 “찰나에 거하다”, “잠시 거하다”, “임시로 거하다”의 뜻도 갖는 寺名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거둔사”는 禪宗 계열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法泉寺 · 居頓寺 · 興法寺의 遺物 · 遺蹟

현재 江原道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11점, 보물 55점, 사적 8건인데 이 중 법천사 · 거둔사 · 흥법사에 국보 3점, 보물 6점, 사적 1건이 있으니 이 세 사찰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들 유물 · 유적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보 3점은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국보 제 101호)과 智光國師玄妙塔碑(국보 제 59호) 및 興法寺 廉居和尚塔(국보 제 104호)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 논급하기에 앞서 먼저 “塔”과 “塔碑”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사를 살펴보면 승려들이 입적하면 그 유체를 荼毘(화장)하여 남은 뼈와 사리는 浮屠를 만들어 안치하게 되는데 이 부도가 형태상으로는 보통 舍利塔과 다르지만 그 기본 성격에 있어서는 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승들의 浮屠는 거의 “塔”이라고 칭하고 있다. 보통 승려의 경우에는 浮屠만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승의 경우에는 중요한 경력이 많고 세상에 끼친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의 일생과 경력을 세긴 碑도 함께 세우게 되는데 이를 “塔碑”라고 하며 浮屠塔과 함께 세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지광국사현묘탑과 지광국사현묘탑비는 한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塔에는 智光國師의 유골을 안치하고 탑비에는 지광국사의 경력을 세긴 것이다.

지광국사현묘탑은 높이가 6.1m인데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신라시대 이래의 八角圓堂形이라는 기본형에서 벗어나 平面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墓塔 중 최대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부도의 구성은 기단부 위에 塔身을 놓고 그 위에 옥개석과 상륜부를 쌓았는데 기단부는 7층의 석재 각부에 가득히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지대석이 매우 넓고 층층의 넓이와 높이에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지대석의 네 모퉁이에는 용의 발톱모양 같은 조각이 지면까지 닿아서 지상에 완고하게 밀착된 듯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최상층의 갑석에는 화려한 장막형이 사면에 드리워져 있어 장엄을 더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면에는 안상 · 운문 · 연화문 · 초화문 · 보탑 · 신선 등이 빈틈없이 가득 조각되었다. 탑신에는 앞면 · 뒷면에 문비형과 좌우에 페르시아 풍의 창을 조각하고 다시 영락으로 장식하였다. 옥개는 천개형으로 장막이 늘어지고 옥개석 낙수면에 해당하는 위치에 불 · 보살 · 봉황등의 조각이 가득하다. 상륜부도 양화 · 복발 · 보개 · 보주가 층층이 올려져 있고 전면에 조각이 가득 장식되었다. 묘탑 전체의 형태를 보아도 자유로운 의장으로 조형되었을 뿐 아

나라 조식이 풍부하고 또한 정교하여 고려시대의 부도로서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작품이다. 이 부도의 조성연대는 부도와 함께 조성한 탑비로 보아 1085년(고려 선종 2)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광국사현묘탑비는 전체높이 4.55m, 비신 2.95m, 너비 1.41m로 고려시대 석비를 대표할만한 걸작으로 수법이 뛰어나다. 비신 옆면에 새긴 운룡조각과 귀부의 귀갑문안에 새긴 “왕”자 등이 매우 특이하며 또한 비면 가장자리에 새긴 보상당초문이나 이수의 네 귀퉁이에 단 귀꽃 및 이수 중앙의 상륜부가 매우 화려하다.

홍법사 염거화상탑은 높이가 1.7m이고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8각을 기본으로 하대 각 면에는 사자를, 간석에는 안상안에 향로등을 조각하고 이중으로 연화를 조각한 상대석과 탑신 받침에도 안상을 두르고 안에 천부상을 각각 양각하였다. 탑신에는 4면에 문호형, 다른 4면에 사천왕상을 조각하고 옥개는 서까래와 기왓골, 막새기와 등을 모방하였고 이면에는 비천이 양각되어있다. 탑 안에서 나온 지판에서 884년(신라 문성왕 6)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라에서 고려에 걸친 8각 원당형 부도 중 연대가 확실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우아한 기품과 소박한 조각법을 보이며 세부조각 또한 청아하다.

다음으로 보물 6점은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보물 제190호),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 78호), 거둔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750호), 홍법사진공대사탑(부석관-보물 제 365호), 진공대사탑비귀부 및 이수(보물 제 463호), 홍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 464호)이 그것인데 원공국사승묘탑과 탑비, 진공대사탑과 탑비(귀부 및 이수)는 지광국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각각 세트를 이루는 것이다.

거둔사의 원공국사승묘탑은 높이가 2.68m인데 하대석은 8각으로 각 면에는 안상이 1구씩 있고 그 안에 화형이 양각되었다. 상면에는 갑석형을 각출하고 16엽의 복판연화가 있는 가운데 3단의 턱이 있어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석도 8각으로 상하에 테를 돌리고 각 면에 좌우로 1단의 굴곡을 둔 간략한 안상을 두었으며, 그 안에는 전면에 걸쳐 팔부중상이 1구씩 조각되었다. 상대석은 판내에 화형을 나타낸 단판연화 16엽 씩을 상하이중으로 돌려 양면을 삼았고 상면에는 호형을 중심으로 그 상하에 각형을 안배하여 8각 3단의 고임을 마련하였다. 탑신은 8각으로 귀퉁이에는 기둥 모양이 있으나 화문대로 장식하였고 각 면에는 전후 양면에 문비형과 문약형을, 좌우에는 창호형을, 그리고 남은 네 면에는 사천왕입상을 양각하였다.

옥개석 역시 8각으로 탑신과 접하는 곳에 4단 받침을 표출하고 그 위에 모난 서까래가 조각되었다. 추녀도 얇고 귀퉁이에는 반전이 뚜렷하다.

옥개 상면에는 8줄 우동형이 곡선을 그리며 흐르다가 전각에 이르러 화형을 달았고 낙수면에는 기와골을 모각하여 추녀에 이르러 암막새·수막새를 각출하여 상하 모두 목조 건축의 지붕을 충실히 모방했다. 정상에는 8각형의 보개가 얹혀 있을 뿐이다. 이 탑은 조형의 비례가 정제되고 중후한 품격을 풍기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서 전면의 조각이 장엄해 한층 화려하게 보인다. 건립 연대는 탑비에 적힌 대로 1025년(고려 현종 16)으로 생각된다.

한편, 승묘탑과 함께 건립된 승묘탑비는 비신 높이 2.45m, 너비 1.26m, 귀부 높이 1.20m인데 비신에 비하여 머리가 크고 특히 이수의 조각은 사실성을 강하게 풍기며 밑 둘레를 수직 집선대로 두루고 장엄을 더한 점과 그 규모가 광대한 점 등이 이 비의 특색이다.

중광갑문은 정 6각형에 가까우며 그 안에는 근자와 寶花 무늬를 서로 어긋 메겨 양각하였고 비좌사면에는 안상을 음각하였다. 귀두는 입을 다문 용두형이지만 짐승의 머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비는 전반적인 조형수법이 딱딱하고 형식화된 고려비로서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거둔사의 세 번째 유물은 거둔사지 삼층석탑인데 높이가 5.45m로 이층기단 위에 삼층 탑신을 세우고 꼭대기에 상륜을 장식한 전형적인 일반형 화강암제 탑이다. 4장으로 이루어진 지대석 위에 역시 4장의 기석을 놓았는데 기반 면석의 각면에는 우주와 탕주 하나씩이 정연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한돌이며 옥신 마다 우주가 모각 되어 있다. 옥개석은 받침이 5단이고 위에는 2단의 방형 고임이 있어 위층 옥신석을 받치고 있다. 추녀는 직선인데 네 귀의 전각의 반전이 경쾌하여 신라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전각부에는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 세 개가 있다. 상륜부는 露盤石 하나만 꼭대기에 남아 있는데 보주형의 다른 부재를 놓고 있다. 거둔사 법당 앞이었던 원위치에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탑이다. 기단부의 이층 구조와 양 우주 및 탕주, 5단의 옥개받침 등의 수법으로 보아 건조 연대는 신라말기(9세기 후반) 일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흥법사의 진공대사탑(부석관)은 높이가 2.91m인데 방형 지대석 위에 8각의 2단 턱이 있는 지대석 위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조성돼 있다. 기단부의 하대석은 연화대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서리마다 연판 안쪽에 나지막한 귀꽃이 장식되어 있다. 복련 밑은 높직한 면석으로 이루어졌고 그 상단은 갑석형이 모각 되었으며 각 면에는 뿔이 안쪽으로 날카롭게 뾰는 안상 1구씩이 음각 되었는데 이 안상 안에 화형문이 장식되었다. 8각의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거의 원형에 가까운 중대석은 전체 표면에 웅장한 구름무늬와 함께 뒤엉켜 있는 용의 몸체가 꿈틀거리는 듯 웅건하게 조각되었다. 용의 눈, 코, 입, 비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승천하는 용의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양련으로 이루어진 상대석은 아랫부분에 1단의 받침이 마련되어 있고 뒷면에는 2단의 8각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16엽의 복판으로 된 양련은 하대석의 복련과 같으나 하대와는 달리 귀꽃이 장식되어 있지 안음을 볼 수 있다. 8각의 탑신은 한 장의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이 모각되어 있는데 기둥 내부의 가운데 부분과 위·아래의 부분에 꽃무늬가 장식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탑신 위에 덮여 있는 옥개석은 8각의 1매석으로 밑면에는 3단의 옥개받침과 이중으로 된 서까래가 표현되어 있어 목조건축의 의장을 엿볼 수 있다. 경사가 완만한 옥개의 낙수면에는 8조의 우동이 굽게 표현되고 전각의 반전이 심한 각 모서리에는 귀꽃이 높게 솟아 있다. 옥개석의 윗면에는 기와를 입힌 모양의 기왓골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각 면의 추녀 끝에 이르러서는 암막새와 수막새까지도 상세하게 모각함으로써 아랫부분의 서까래와 함께 당시 목조 건축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상륜부에는 옥개석 정상에 寶蓋만이 남아 있을 뿐 모두 결실되어 그 정확한 모습은 알 길이 없다. 탑의 조성연대는 탑비의 건립연대와 같은 940년(고려 태조 23)으로 생각된다.

한편, 진공대사탑비는 현재 귀부와 이수만 현장에 남아 있고 네 쪽으로 깨어진 비신은 경북 궁 근정전 회랑에 진열되어 있다. 귀부의 높이는 75cm, 이수의 높이는 99cm인데 귀부와 이수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활달한 조각의 龜趺와 깊게 새긴 이수의 雲龍이 인상적이다.

홍법사지삼층석탑은 높이 3.69m, 지대석 너비 2.15m의 화강석제인데 2층 기단 위에 사각형의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지대석 위에 하대석과 중석을 한 돌로 만든 것 4개를 짜맞춘 아래층 기단이 있다. 기단 각면에는 우주나 탱주없이 안상만 3개씩 있다.

안상 안에는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화형이 있다. 갑석은 너비가 좁은 편이며 두 장으로 되어 있다. 갑석 밑에는 부연이 없고 윗면을 경사지게 한 것이 특이하다. 1단의 얇은 고임이 간략화의 과정을 엿보게 해 준다.

위층 기단의 중석을 여러 장의 판석으로 불규칙하게 구성했으며 규모가 크고 길다. 너비가 좁은 우주와 탱주가 모각되어 있고 갑석은 얇은 2장의 판석을 덮었는데 역시 부연이 없고 윗면은 경사가 저 있다. 탑신부는 기단에 비해 갑자기 작아져서 균형을 잃었다. 각 층의 옥신에는 가느다란 우주만 모각되어 있는데 각층의 옥개석은 밑의 받침이 4단이고 낙수면은 두꺼워서 경사가 심하며 추녀 밑은 전각에서 약간 반전하는 등 고려시대의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상륜부에는 부서진 로반만 남아 있어서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사적 1건은 “거둔사지”인데 이는 “거둔사의 현황”에서 논급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된 “법천사지 당간지주”와 동 45호로 지정된 “홍법사지”가 있는데 역시 “법천사의 현황”과 “홍법사의 현황”에서 논급될 것이므로 역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 法泉寺 · 居頓寺 · 興法寺의 現況

1) 法泉寺의 現況

법천사는 강원도 원주시 富論面 法泉里 74의 2, 鳴鳳山 아래 있었던 사찰로서 신라 聖德王 24년(725)에 창건되었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때 소실로 폐사가 되어 현재는 사지만 남아 있다.

폐사 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있었던 절의 중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면이 밭이나 논지로 되어 있고 다만 언덕 위의 지광국사현묘탑과 탑비등 석조 유물이 남아 있는 부근 일부와 산문 쪽에 있었을 당간지주만이 법천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조선 초기에 柳方善이 법천사에 머물면서 강학하였는데 이때에 韓明澮, 康孝文, 徐居正 權擘 등이 수학하면서 탑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현묘탑비를 비롯하여 불상광배, 불두, 연화문대석, 용두, 석탑재 등이 남아 있는데 국보 제 59호로 지정된 지광국사현묘탑비는 높이가 4.55m로 비면 주위에는 아름다운 국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좌우 양쪽에는 각각 두 마리의 나는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모습을 조각하여 1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고 있다.

절터 남쪽 약 800m 지점에는 완전한 형태의 화강암재 당간지주가 있는데 높이가 2.80m되는 신라시대 작품으로 당시 법천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탑의 옆에 있었던 지광국사현묘탑은 일정 시대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광복 후에 다시 반환되어 와서 현재 경복궁 정원에 보존되고 있는데 국보 제 101호로 지정되었다.

2) 居頓寺의 現況

거둔사는 원주시 부론면 鼎山里 144 玄溪山에 있었던 사찰로 신라시대에 창건되고 고려 초기에는 대찰의 면모를 이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거둔사도 임진왜란때 소실되어 폐사가 된 후 오랫동안 사지만 남아 있는데 다만 거둔사는 법천사나 홍법사와는 달리 사지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현재 약 7,500여 평의 절터가 남아 있고 여기에 금당지를 비롯한 여러

유물,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금당지에는 전면 6줄, 측면 5줄의 초석이 남아 있어서 이곳에 큰 법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금당지 중앙에는 높이 약 2m의 화강석 불좌대가 있고 금당지 앞에는 보물 제 750호로 지정된 삼층석탑이 있다.

또, 절터에 있는 민가의 우물가에는 탑 옆에서 옮겨 왔다는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그 크기가 135 85cm 이며 전면과 측면에 안상을 조각했고 상부에는 연꽃무늬를 조각했다.

3층석탑의 북쪽 약 50m지점에는 보물 제 78호로 지정된 원공국사승묘탑비가 있고 이 비석 서쪽 60m 지점에는 원공국사승묘탑이 있었으나 일정시대 서울에 사는 일본인의 집으로 옮겨 갔던 것을 1948년에 경복궁 정원으로 옮겨 세웠다. 이 부도는 고려 시대 부도탑의 정형으로서 보물 제 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절터에서 약 30m 아래에는 높이 3.6m의 거대한 미완성 당간지주가 있다.

3)興法寺의 現況

흥법사는 원주시 地正面 安昌里 517의 2에 있던 사찰인데 고려사 태조 23년 추 7월조에 “왕 사인 忠灌이 죽었으므로 탑을 원주 靈鳳山 흥법사에 세웠다....”고한 기록으로 보아 흥법사는 고려 초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오랜 동안 폐사지로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농지로 되어 있고 밭 가운데에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와 석등재가 놓여 있고 3층석탑 1개가 서있을 뿐이다.

진공대사탑비와 함께 있었던 진공대사탑 및 부속 석관은 1931년에 경복궁 정원에 옮겨 세웠고 탑비의 비신도 일직이 파손되어 4조각이 현재 경복궁 勤政殿 회랑으로 옮겨져 진열되어 있는데 비신의 일부가 결실되어 비문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편 원주 흥법사에서 옮겨 왔다고 하는 廉居和尚塔이 경복궁 정원에 서있는데 근래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설이 제기 되었다.

5. 智光國師 · 圓空國師 · 眞空大師

1)智光國師玄妙塔과 智光國師

지광국사현묘탑은 현재 비신상부에 사선으로 금이 가 있어서 다소의 손상이 있으나 비문은 거의 판독이 가능하며 또 1919년에 간행된 朝鮮金石總覽이나 그 이전 비첩 · 탁본에 비문이 소

개되어 있어서 지광국사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비문에 의하면 이 비는 고려 宣宗 2년(1085)에 세웠는데 찬문자는 「中大夫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尙書禮刑部事 監修國史 兼 太子大傅 上柱國」인 鄭惟産이고 書者 兼 篆額者는 「承奉郎 尙書都官郎中 賜緋魚袋」인 安民厚이다.

지광국사의 이름은 “海麟”, 字는 “巨龍”이며 俗姓은 “元氏”인데 어릴 적 이름은 “水夢”이다. “原州人”이라 한 것으로 보아 국사는 원주지방의 강한 토착 씨족인 “원주 원씨”로서 지역적으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비문 “陰記”에 “故法泉寺主 智光國師 碑銘”이라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국사는 법천사의 주인이었으며 국사와의 제자 관계되는 승려 玄化寺主인 僧統 韶顯과 俗離寺主인 王子 僧統 石 등 1,370여인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智光國師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국사는 고려 成宗 3년(984)에 태어나서 일찍이 法泉寺의 大師 寬雄에게 가서 수업했으며 얼마 후 海安寺의 俊光 方丈에게서 삭발 出家하고 1001년 4월에 龍興寺 僧이 되고 崇敎寺 개창에 참여 하였고 21세 되던 해에 王輪寺 大選에 합격하여 “大德”이 되고 「講眞弘道」란 法號를 받았으며 1017년에 「明了頓悟」를 加號하고 太平年間에 中隊師에 올라 水多寺 住持가 되었다.

1030년에는 海安寺 住持로 옮기며 三重大師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首座」를 가수하고 1045년에는 僧統을 시켰다

1054년에는 왕명에 따라 玄化寺 住持가 되고 1056년에는 王師로, 1058년에는 드디어 國師로 封하고 靈通寺 住持로 삼았는데 國師는 1067년에 귀휴를 간청하여 9월 27일에 법천사로 돌아갔고 다음달 10월 23일에 입적하니 향년이 87이요 승랍이 72였다.

부음을 듣자 고려 文宗이 진도하고 중관을 보내 치제하고 「智光」이라 증시하고 예장케 하니 다음달 11월 9일에 법천사의 산 동쪽에서 茶毘禮를 행하였다.

2圓空國師勝妙塔과 圓空國師

원공국사탑비는 보관상태가 양호한데 비문에 의하면 이 비는 고려 顯宗 16년(1025)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찬자는 「中樞直學士 宣議郎 尙書吏部郎中 知制誥 兼 史館修撰官 賜紫金魚袋 崔冲」이고 서자 겸 전액자는 「朝請郎 禮賓丞 賜緋 金巨雄」이다.

원공국사의 이름은 智宗, 字는 神則이며 俗姓은 李氏이니 全州人이다.

비문에 국사가 1018년에 입적하였는데 수가 89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국사는 930년 (신라 敬順王 4)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국사는 8세 때에 舍那寺의 弘梵에게 가서 落髮하고 얼마 후 廣化寺의 景哲和尚에게 수업하

였다.

970년에 靈通寺의 승이 되고 953년에는 曦陽山의 超禪師에게 나아갔는데 고려 光宗이 불교를 크게 일으키는데 힘입어 서쪽으로 吳越國으로 들어가 永明寺 壽禪師를 만났다.

961년에는 國淸寺의 淨光大師를 찾아뵈 후 大師가 되어 金光禪院에 거처하다가 말년에는 重大師를 더하였고 景宗이 즉위하자 三重大師를 제수하였고 成宗朝에는 積石寺에 住持케하고 法號를 慧月이라 하였다. 穆宗이 즉위하자 여러 번에 걸쳐 光天 遍照 至覺 智滿 圓默 禪師의 호를 더하고 佛恩寺·護國外帝釋院 등을 주지케 하였다.

顯宗이 즉위함에 미처서는 大禪師로 높이고 廣明寺에 주지케 하였으며 法號를 “寂然”으로 올렸다.

그리고 현종 4년(1013)에는 왕사로 봉하였는데 1018년에 원주 賢溪山 거둔사로 은퇴하여 4월 17일에 입적하니 世壽가 89, 승랍이 72였다. 상이 이를 듣고 진도하여 내신을 보내어 조위케 하고 국사를 增하였으며 시호를 “원공”이라 하였다.

3) 眞空大師塔碑와 眞空大師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공대사탑비는 일찍이 파손되어 일부는 손실되고 상태가 나빠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제 타처의 기록을 종합하여 가능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비는 고려 태조 23년(940)에 세웠던 것인데 왕년에 원주군청으로 옮겼고 1913년에 京城으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비문에 의하면 대사의 法諱는 忠湛이요 속성은 김씨인데 그 선조는 鷄林의 冠族으로 신라 景文王 9년(869) 정월 2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性靈이 超衆하고 神悟가 絶倫하더니 일찍이 長純禪師에게 수학하고 진성여왕 3년(889)에 武州 靈神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후삼국 전란기에 고려 태조에게 크게 존숭되어 왕사로 대우하였는데 태조 23년(940) 7월18일에 입적하니 세수가 72였다.

이 비는 고려 태조가 직접 비문을 짓고 崔光胤이 왕명을 받들어 唐太宗의 글씨를 集字하여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흥법사지에 있다가 경복궁으로 옮겼다고 전하는 廉居和尚塔이 있는데 근래에 흥법사에 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설이 제기 되었으나 그렇다고 어떤 다른 寺址에서 가져왔다는 확증도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가 어렵다.

이 탑에서는 동판으로된 葉거화상 誌板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肅昌 4년 歲次 甲子(신라 文聖王 6년-844) 9월 29일에 입적한 葉거화상의 탑인데 釋迦牟尼佛이 涅槃에 드신 때로부터

1804년이 된다.」고 하여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6. 結 論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 지역은 지리상으로 요충지에 위치해서 각 시대마다 중요한 지방 행정 단위가 설치되어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따라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불교가 사상의 중심을 이루었던 신라·고려시대에는 이곳에 여러 거찰들이 창건, 유지되고 고승들이 배출되어 왕실의 존숭을 받고 불교계를 이끌었는데 그 흔적은 법천사·거둔사·홍법사 세 사찰 遺址와 그곳에 있었던 典雅하고 壯嚴한 유물들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 사찰에 남아있는 3점의 국보와 6점의 보물들은 예술적으로 뛰어나서 신라 말, 고려 초 석조 예술의 높은 수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불교시대인 당시의 불교의 흐름과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서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자료도 되는 것이며 아울러 불제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불교와 山岳신앙

鄭 柄 朝

불교와 山岳신앙

鄭 柄 朝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불교연구원장)

- 차례
- 1. 五岳三山신앙
 - 2. 불국토 사상의 전개
 - 3. 산악신앙의 불교적 수용
 - 1) 선도산 聖母
 - 2) 五台山 신앙과 文殊보살
 - 3) 洛山寺와 관음신앙
 - 4) 金剛山 信仰
 - 4. 맺는말

1. 五岳三山신앙

한국은 전국토의 7할 이상이 山脈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는 山岳型 특색을 지닌다. 비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海洋的 특수성보다는 山岳崇拜의 경향이 강하다.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의 고유신앙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대체로 고대의

한국인들에게는 토테미즘(Totemism) · 샤머니즘(Shamanism) · 애니미즘(Animism)적 신앙이 폭넓게 유포되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단군신화>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케이스이다. 단군 왕검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는 熊女는 토테미즘의 전형이다. 곰 · 호랑이 등은 북방성 기후를 가진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경배 대상이었다. 곰이 인간으로 화현하기를 빌었고 또 그를 통해 下降했던 신단수는 애니미즘의 표본이다. 지금도 성황당은 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조선을 다스렸던 단군왕검은 샤먼이었다. 그가 三符印을 지녔다는 것은 祭政一致시대의 제사장이었다는 점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¹⁾

박혁거세와 관련된 신화 또한 산악숭배와 애니미즘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경우이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의하면 六部の 村長들이 알천의 언덕에서 나라의 후사를 논하였는데 양산의 나정결에서 알을 얻었고, 그 알을 깨고 나타난 이가 바로 혁거세 왕이라고 하였다. 양산은 지금의 경주 南山을 가리킨다. 산이 신성스러울 수 있는 까닭은 물과 수풀 때문이다. 물은 淨化의 능력을 가졌으며 수풀은 은둔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도인은 예외 없이 깊은 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단군신화>의 경우처럼 나무는 天上과 人間界, 세속과 超世俗을 잇는 교량으로서의 신성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유달리 숲에 대한 신성성이 강조되고 있다. 前佛시대의 七處伽藍타이었던 천경림, 신유림, 「삼국사기」에 언급되는 문열림 등이 그 대표적 실 예이다. 또 김알지가 태어난 곳 또한 계림이다. 신라 금관에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 또한 단순한 데코레이션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의 현장이 된 산, 수풀 등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곳이다. 天神이 강림할 때는 예외 없이 山이 등장한다. 환웅은 태백산, 김수로 왕은 구지봉을 통해서 하강한다.²⁾

따라서 불교도입 이전에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었던 것은 바로 산악숭배신앙이었다. 불교가 수용되면서 방방곡곡의 名山에는 大刹이 들어서고 수많은 불교미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본래부터 신성스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던 山岳들을 서서히 불교적으로 윤색해 가기 시작한다. 불교가 대중화되는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名山의 봉우리마다

1) 최광식, <삼국사기 소재 노구의 성격>, 「사총」 25, 1981. 여기서 무당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강신무나 세습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당시 토착신앙의 司祭라는 의미이다.

나희라, <신라초기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1990. 초기 왕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2) 흔히 天降신화는 북방형 신화로 卵生신화는 남방형 신화로 파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이 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즉 두 설화를 지역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대적으로 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天降신화적 요소는 단군신화처럼 앞선 경우이고, 난생 신화적 요소는 박혁거세의 경우처럼 다소 후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불보살의 名號가 붙여지고 深山幽谷마다 수행의 도량들이 마련됨으로써 토착신앙이었던 山岳崇拜은 서서히 불교신앙으로 정착하게 된다.

「삼국사기」권32 〈祭祀志〉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신라는 산악을 신격화하여 護國神君으로 받드는 산악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것이 三山五岳인데, 이를 大祀와 中祀로 표현하여 국가 최상의 祭典으로 삼았다. 신라의 大祀三山과 中祀五岳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신라 세력을 상징하는 신라 최고의 호국성신이였다. 신라 오악은 동의 土倉山, 서의 계룡산, 남의 智異山, 북의 太白山, 그리고 중앙의 八公山³⁾을 지칭한다” 신라인들이 山岳을 경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호국적 관념〉때문이다. 석탈해의 신화는 이를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석탈해는 남해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한 인물이다. 매우 신이롭고 지혜있는 군왕으로 묘사되는데 그는 죽은 후에 두 번 장례를 치렀다. 즉 소천구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뼈는 동악 토함산에 안치하였다. 석탈해의 뼈는 매우 비범하였는데 文武王때 그에 관한 언급이 다시 나타난다. 즉 문무왕의 꿈에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토함산에 자신의 塑像을 만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를 동악신으로 모시고 국가적 제사를 봉행하였다고 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불교 수용이 상당히 늦다. 또 수용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異次頓의 순교는 그 단적인 실증이다. 그러나 삼국가운데 가장 우수한 불교문화를 창출하였고, 국가의 기본적 이데올로기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山岳숭배 등 기존의 토착신앙과 불교가 처음에는 충돌하여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두 신앙이 융화하여 새로운 문화질서를 만들어 갔다는 의미이다. 즉 토착신앙의 불교적 수용을 통해 더욱 고양된 불교 문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2. 불국토 사상의 전개

신라인들의 五岳三山신앙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산악숭배의 배경에는 사머니즘적 토속신앙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변모해 가는 과정이 감추어져 있음을

3) 八公山은 경북 군위, 경산, 영천, 칠곡에 걸쳐 있는 1,193m의 산이다. 삼국시대에 公山·父岳등으로 불렸으며, 五岳가운데 中岳으로 尊崇되었다. 桐華寺, 銀海寺등의 본사가 있으며 松林寺, 제2 석굴암으로 불리는 軍威三尊石窟, 冠峯(속칭 갓바위)에 禪本寺등 중요한 사찰이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소 맹목적이었던 산천에 대한 畏敬심리는 불교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고유신앙을 흡수시킴으로써 토착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신라 땅이 불교와 낯선 곳이 아니라 본래 불국토였다고 하는 신라 불국토설이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 설화로는 前佛가람터와 황룡사 丈六像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전불가람터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파한 阿道에 관련한 기사이다.⁴⁾ 사실 阿道の 설화는 墨胡子和 혼동한 흔적이 있고, 실제로 아도와 묵호자가 과연 동일인인가 아닌가에 하는 논의도 尙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주목하려는 점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증이 아니라 상징성의 천착이다. 阿道の 어머니는 신라시대에 전불시대의 가람터가 있다고 말한다. 전불시대는 과거불로서의 연등불(Dipankara)를 가리킨다. 즉 까마득한 과거세에 이미 佛緣있는 절터가 신라 땅에 일곱 군데 있었다는 주장이다. 忠孝를 중시하는 농경사회에서 出家를 이상으로 삼았던 불교는 쉽게 용인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초기 中國의 경우에는 王權강화의 수단으로 불교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한다. 隋나라의 〈王卽佛〉사상은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표출된다. 왜냐하면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수용을 거부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왕실에서 하향적 불교수용이 강력하게 지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라불교수용의 경우에는 어쩌서 조직적인 저항이 이루어졌느냐하는 점이다. 물론 六村長과 법흥왕과의 권력투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설득력있는 것은 토착신앙과 불교사상과의 마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불교는 전통적 忠孝논리에 대하여 불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불교 또한 忠孝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 불교의 교리가 전통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발전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나가야 했다. 그것이 바로 불국토설의 사상성이다.

황룡사 장육상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불국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인도의 아쇼카(Ashoka)대왕이 발원하여 造成하려던 불상이 끝내 성공치 못했다가 드디어 신라 진흥왕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했다. 즉 신라는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진흥왕은 그 실증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불국토사상은 급기야 불교를 외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라는 믿음으로 발전케 하고 그것은 신라 불교의 토착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신라불국토설의 전개에는 慈藏을 비롯한 초기 求法僧들의 활약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 발전

4) 「三國遺事」卷第三 興法第三 阿道基羅에는 前佛七處伽藍址에 대한 언급이 있다.

同 塔像第四 黃龍寺丈六像에는 아쇼카대왕이 造成에 실패했다는 설화등이 실려 있다.

된 불국토사상의 구체적 사례가 五台山信行이다.⁵⁾ 오대산신앙을 이식시킨 인물은 자장이지만 실제로 이 산을 신비화시킨 것은 淨信大王, 그리고 두 태자로 믿어지는 宝川·孝明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태자 두 사람은 각각 세속을 버릴 뜻을 가지고 암자를 짓고 오대산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여기서 五峰을 참배하고 그 안에 있는 五萬의 眞身을 보았으며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親見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五台山 앞서 말한 五岳의 경우처럼 동서남북의 四台에 중앙을 합한 것이다. 오대산신앙이란 그 각대마다 불보살의 상주천 또 밤낮으로 나누어 그에 합당한 경전을 읽고 禮懺하는 信行結社를 의미한다. 이것은 方位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山岳 숭배→道敎→불교의 習俗과정 및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위에 불보살을 배정하는 것은 역시 그곳에 위치하는 불보살에 대한 강한 믿음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배경이 바로 대승불전이였다. 신라인들은 이 오대산 신앙을 가장 독창적으로 수용 전개하였다.

이 오대산 신행을 통해 보이는 신라인의 역사의식은 결코 어느 특정한 불보살을 선호한다기 보다는 그 모든 것을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교설을 도그마(Dogma)로서 이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다양성을 一乘의 방편으로 회향할 줄 아는 지혜를 보인다.⁶⁾ 다시 말해서 신라의 오대산신앙은 一乘의 이상향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사상성을 선호하는 신라불교의 특징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조형예술·건축물·회화 등 거의 모든 유형적 불교문화유산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신라적 美의 창조에도 큰 기여를 한다. 종파 불교를 지양하면서도 다양성을 보여주고, 획일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일승의 기풍을 지향하는 신라적 불교전개의 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오대산 신앙은 한국적 산악숭배가 불교적으로 습합 정착되는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7세기 초반의 신라 산악 숭배신앙은 이미 그 곳이 文殊의 住處라는 아이디어로까지 발전해 나가게 된다. 특히 「화엄경」이 도입된 이후 금강산 신앙에 널리 流布되는 것 또한 불국토 사상의 전개를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인도, 중국, 일본 등 모든 대승불교의 문화권에는 금강산 신앙과 더불어 오대산 신행이 이어져 온다. 이 산악숭배 신앙이 신비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불국토 사상의 한국적 전개가 갖는 중요한 내용이다.

5) 「三國遺事」 五台山五萬眞身 및 冥州五台山寶叱徒太子傳記 등 參照. 이 둘은 그 내용이 비슷하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다소 詳細할 따름이다.

6) 拙稿, 〈한국불교의 역사의식〉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刊 1995. pp.40-41참조

3. 산악신앙의 불교적 수용

1) 선도산 聖母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한 비구니가 꿈에 선도산 聖母의 敎示를 받아 불전을 수리하였다. 교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 자리 밑에서金を 꺼내어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五十三佛과 六類聖衆과 여러 天神들, 널리 五岳의 神君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해마다 봄, 가을에 열흘 동안 선남선녀들을 보아 一切중생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베풀되 항상 이것을 지키라>고 하였다. 비구니가 꿈을 깨어 자리 밑을 파보니 과연 성모의 말과 같아서 그 가르침대로 法會를 진행하였다.”

이 설화에는 첫째 선도산에 聖母가 있다는 믿음, 둘째 그 성모는 佛事를 원만히 회향시키는 힘을 지녔다는 점, 셋째 성모가 이루려했던 꿈은 <占察法會>였다는 점등이 강조되고 있다. 점찰법회에 관해서는 원광법사의 전기에 중요한 언급이 있다.

“법흥왕이 佛法을 일으킨 이래 중생제도의 방편이 비로소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불법의 깊은 곳에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歸戒滅穢의 법으로서 愚迷한 중생을 開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圓光은 자기가 거주하던 嘉熙寺에 점찰보를 설치하고 이로서 恒規를 삼았다. 그때 淸信女가 점찰보에 전답을 바쳤는데 그것이 지금(고려 一然스님 당시를 가리킴, 필자⁷⁾)의 東平郡에 있는 전답 一百結인데 그 고적에 아직도 남아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점찰보 설치의 목적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차원 높은 삶의 태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開曉愚迷],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함으로써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도록 하는데 [歸戒滅穢] 있다는 주장이다. 신라 사회의 엘리트집단이었던 화랑의 세속오계가 보살계사상에 연원을 둔 호국적 윤리이념이었다면 점찰보는 대중의 윤리의식을 高揚시키는 규범질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찰교법을 선도산 聖母가 이식시켰다는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바 있다. 즉 7세기 중엽이 되면 이미 산악승배는 불교적으로 융성되었다는 反證이다. 또 일연의 지적처럼 법흥왕의 불교공인 이후 아직 불교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일반민중들을 교화시켜서 원숙한 불교문화를 개화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까지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원광에 의하여 시도전 참회교법은 景德王代 眞表에 이르러 독특한 교화방편으로 확립되며 세간의 占相에 의한 방법으로도 원용된다. 이것은 일연의 지적처럼 불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민중들에게 원숙한 불교문화로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로 이해된다.

2)오대산 신앙과 文殊보살

문수보살의 산스크리트 원명은 만주슈리·보디삿트바(Manjusri Bodhisattva)이다. 한문으로 문수 혹은 뜻을 따라 妙吉祥, 妙德이라고도 번역한다. 文殊보살의 修道授記, 그리고 사상성을 보여주는 文殊전거경전은 약 60여 종류가 있다. 흔히 그를 지혜의 化身이라고 묘사하는 바, 그와 같은 사상경향은 대승불교의 초기, 즉 반야부의 경전들이 성립되던 시대부터 비롯되었다. 「화엄경」이 등장하면서 문수보살은 보현과 더불어 法身불인 비로차나 부처님의 협시불로서 묘사된다. 그러나 화엄교관에는 三聖圓融觀이 있다. 즉 문수와 보현, 비로차나 부처님의 三身이 동등하다는 行法을 말한다.⁸⁾ 우리나라에 이 문수신행을 도입한 인물은 자장이었다. 그 분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황룡사에 구층목탑을 세운 점, 의관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한 점, 僧統으로서 신라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운 일 등 행정가로서의 면모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문수 보살과의 기이한 인연이다. 그는 중국 유학당시 문수보살을 친견한바 있다.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가 화엄학과 깊은 연관을 맺었고 또 자연스럽게 문수 보살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장이 중국에서 修學한 곳이 바로 淸涼山이었다는 점 둘째 그에게 현몽한 장본인이 바로 문수였고, 또 문수가 자장에게 준 梵偈는 모두 화엄적 철학 사상을 고양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그는 귀국 후 元寧寺의 낙성회때 雜花萬偈를 논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자장이 終南山을 방문한 A.D.636년은 화엄종의 開祖로 알려진 杜順의 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장이 직접 두순을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자장의 전기 가운데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비극적 최후에 관한 기사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화엄종과의 결별을 뜻하는 기사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것은 문수 신앙을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진하게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엄한 律行, 청정만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般若의 원융무애한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장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근엄한 律行이요 철저한 수도자적 자세였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결코 頭陀行만이 아니다. 오히려 不二를 실현하는 삶, 조화와 통일을 위한 철저한 보살 정신이 반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장이라는 고승의 인격적 한계를 나타내는 기사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코 자장과 특정사상 내지는 신앙과의 결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중국화엄종의 정통임을 내세우는 자장의 후배 의상(625~702)과의 관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상은 해동화엄의

8)三聖이 융합하여 일체화될 수 있다는 이 三聖圓融觀의 아이디어는 通玄장자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 이론을 확립시킨 인물은 당나라의 澄觀이다. (高崎道直, 「화엄사상의展開」(강좌대승불교 三 春秋社, pp.23~28 참조)

初祖로 숭앙되며, 그 門下에는 十大德이 배출된다. 이들 정통 한국 화엄학의 계보에서 볼 때 의상보다 앞서 화엄학을 도입했다는 자장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즉 자신의 정통성이 입증되려면 상대방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스스로가 정당화된다는 논리구조를 보이는 설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이 인 재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이 인 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

1. 서론

신라 통일기 강원도 지역은 9주 5소경제의 시행에 따라 춘천에 삭주의 치소(治所)가 마련되고 강릉에 명주의 치소(治所)가 설치됨과 함께 원주에 북원경(北原京)이 설치되게 되었다. 북원경은 신라 소경제의 설치 목표에 따라 원주 토착세력과 함께 경주계 진골세력,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세력들이 이주해와 상당히 다양한 주민 구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말에 접어들면서 왕위쟁탈전의 영향으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정국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국변화와 함께 원주 불교계도 다양한 양상을 띠며 발전하고 있었다. 9세기 들어 화엄종 십찰의 하나인 비마라사가 원주 지역에 설치되고 법상종 계통의 사찰인 법천사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원주 불교계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 더욱이 신라 왕실의 요청으로 거돈사에 지증 도현이 머물고, 흥녕선원에 징효 절충이 주석하게 되면서 행정적으로 소경이라는 지위와 국가 종교상으로는 교종과 선종 양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띠며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9세기 원주가 정치·사상적으로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라 정부에 대한 이 지역의 비판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9세기말 이 지역민들의 조세 거부운동과 그에 따라 양길과 궁예가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신라 통일기 북원경의 설치와 운영, 9세기와 10세기 이 지역 정치세력의 재편과정과 불교계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원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정치·사상적인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전국적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던 나말여초 사회변동의 여러 양상이 원주라는 제한된 지역

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기왕에 정리되었던 이 시기 사회변동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신라 통일기 북원경(北原京)의 설치와 운영

7세기 후반 삼국 통일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673년(문무왕13) 전국을 9주로 재편하고, 수도인 경주가 한반도 한 쪽 편에 치우쳐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5소경을 두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9주 가운데 하나인 수약주(首若州 = 朔州)의 치소(治所)를 지금의 춘천에 두고, 5년 후인 678년(문무왕18) 원주에는 북원경(北原京)을 설치하였다.¹⁾

북원경의 장관은 17관등으로 서열화된 신라 관등제에서 9등급인 급별찬에서 4등급인 파진찬 사이의 경위(京位)에 있던 인물이 임명된 사신(仕臣 = 사대등 仕大等)이었다.²⁾ 초대 장관이었던 오기(吳起)는 경위 5등급인 대아찬으로 임명되었는데,³⁾ 이후 북원경 장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경위 5등급 정도의 인물이 이후에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북원경의 관할 영역은 지금의 원주시를 포괄하는 정도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횡성은 당시 수약주(首若州)의 영현(領縣)이었고, 제천도 영현을 거느린 주현이었으며, 북원경과 인접해 있던 중원경(中原京)은 한주(漢州)에 속해있던 소경으로 중원경과의 경계는 지금과 같이 소태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주 쪽도 한주(漢州)에 속했던 황호현이었으므로 당시 북원경의 관할 영역은 지금의 원주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북원경의 치소(治所)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단지 북원경성(北原京城)만 둘레 1031步의 성(城)으로⁴⁾ 나와 있다. 이 성(城)에 대해서는 평지에 있던 나성(羅城)으로 보기도 하고⁵⁾ 지금의 영원산성(鵠原山城)으로 보기도 하는데,⁶⁾ 「증보문헌비고」와 「대동지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원산성의 둘레가 1031보였다는 것을 보면⁷⁾ 영원산성이 바로 북원경성이었다고 생각된다.

1) 「三國史記」 卷35 地理2 北原京.

2) 「三國史記」 卷40 職官 下 外官.

3) 「三國史記」 卷7 文武王 18年 春正月.

4) 「三國史記」 卷25 地理2 北原京 “神文王五年 築城 周一千三十一步.”

5) 李道學, 2000 [제2장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原州市史 - 역사편」, p218.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の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 18.

6) 차용걸, 1998 「原州 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報告書」, pp23~24.

다. 그러므로 복원정성은 비상시에 사용하던 성(城)이었을 것이고, 영원산성에 오르는 주 진입로가 지금과 같이 금대리 영원사로 올라간다면 복원정의 치소(治所)는 역시 원주천을 끼고 있는 현재 강원감영 터 부근이었을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복원정의 주민 구성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고래로 원주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둘째, 소경 운영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사민(徙民)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인접한 충주에 경주의 귀척자제(貴戚子弟)와 육부호민(六部豪民)을 옮겼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고,⁸⁾ 674년(문무왕14) 진골 출신(六徒眞骨)들을 9주의 치소(治所)와 5소경에 이주시켰다는 것을 보면⁹⁾ 복원정인 원주에도 경주에 거주하던 진골(眞骨) 출신과 호민(豪民)들이 옮겨와 거주하였을 것이다. 신라가 경주 출신의 인물들을 소경에 거주하게 한 것은 우선 복원정의 토착 세력들에게 발전의 전망을 주려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지만, 옛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신라의 국가체제 내에 포섭하려는 이유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74년 경주 진골 출신과 호민들을 소경에 옮겨 살게 한지 십여 년만인 685년(신문왕5) 남원 소경에 여러 주군(州郡)의 민호(民戶)를 나누어 거주케 한 조치 때문이다.¹⁰⁾

앞서 신라는 551년(진흥12) 가야의 궁중악사였던 우륵(于勒)을 충주에 안치(安置)시킨 후 신라인인 대나마 주지와 계고, 대사 만덕 등을 보내어 가야금 공부를 시킨 일이 있었다.¹¹⁾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라 출신 3인이 우륵이 원래 가르쳐 준 열 한 곡을 배웠는데, 신라인이 듣기에는 원 노래 열 한 곡이 너무 번잡하다고 하여 다섯 곡으로 줄이니 이에 우륵이 반발하였다가 실제 다섯 음률을 듣고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주에 거주하던 일부 인사들은 신라출신들이 변주한 곡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흥왕이 직접 의견 조율에 나서서 가야가 망한 것은 가야왕의 문제이지 음악 때문이

7) 「增補文獻備考」卷28 輿地考 16 關防4 城郭4. “原州 原山城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一千三十一步 內有井一泉五.” 「大東地志」卷15 江原道 原州 城池 原山城 “在雉岳山之南 新羅神文王築 高麗改築 本朝改築 周一千三十一步 井泉六 四面皆峻險.”

8) 「三國史記」卷4, 眞興王 19年 2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9) 「三國史記」卷40, 職官 下,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

10) 「三國史記」卷8 神文王 5年 3月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11) 「三國史記」卷32 樂.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傳其業. 三人既傳十一曲, 相謂曰 此繁且淫, 不可以爲雅正. 遂約爲五曲. 于勒始聞焉而怒, 及聽其五種之音, 流淚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爾其奏之王前. 王聞之大悅. 諫臣獻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蓋聖人制樂, 緣人情以爲 節, 國之理亂不由音調. 遂行之, 以爲大樂.”

아니라는 강력 변호하였다. 그 결과 우륵의 음악이 신라에 널리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금이 국원소경이 있었던 충주와 관련되어 신라에 퍼졌다면 거문고는 남원소경이 있던 남원과 관련되어 신라에 퍼졌다. 고구려 사람 왕산악이 만든 곡조 1백 여 곡은 신라출신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서 연구하여 30곡으로 신라인에 정서에 맞는 변주곡을 만들었고, 이 곡이 속명득과 귀금에게 이어져 나왔지만 지리산에 국한되어 곡이 연주되어 신라에 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신라 왕이 이찬(伊漣) 윤흥(允興)을 남원경의 장관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계통의 악곡을 전수 받고자 하였는데, 윤흥이 남원 출신 안장과 청장을 선발하여 귀금에게 보내 거문고 악곡을 공부시켰으나 중요한 부분은 수업 받지 못한지 3년이나 되었는데, 이에 남원경 장관이었던 윤흥이 처와 함께 직접 귀금을 찾아가 호소한 결과 전체 악곡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이 기록에 나오는 신라왕은 이찬 윤흥이 866년(경문왕6) 동생들과 반역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아마도 경문왕이나 혹은 현안왕이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신라인인 옥보고와 속명득, 귀금으로 전래되는 기간을 한 세대 30년 총 90년으로 잡아도 776년(886-90), 그렇다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100여 년 간은 고구려 출신이 직접 거문고 악곡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 기록과 앞서 685년(신문왕 5년) 여러 주군(州郡)의 민호(民戶)를 남원소경에 나누어 거주케 했다는 것을 보면 민호의 실제 가운데에는 고구려 유민이 주요 사민 대상의 하나였을 것이고,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면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 가운데 신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복원정에 적용해 보면 복원정에도 원주 토착세력과 경주 출신 이주 세력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계 유민들도 옮겨와 거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의 토착세력인 원주 원씨의 시조를 고구려 계통의 원정에 대고 있는 것은 신라 통일기 원주에 고구려 유민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복원정의 주민 구성이 이렇게 때문의 복원정 장관의 임무도 여러 계통의 주민들을 통합할 만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장관의 임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대등(仕大等)이라

12) 「三國史記」卷32 樂,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而不知其聲音反鼓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 第二相王山岳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以奏之,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羅人沙淦 恭 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先生. 先生亦入地理山, 不出. 羅王恐琴道斷絕, 謂伊淦允興, 方便傳得其音, 遂委南原公事. 允興到官, 簡聰明少年二人, 曰安長·清長, 使詣山中傳學. 先生教之而其隱微不以傳. 允興與婦偕進曰 吾王遣我南原者, 無他, 欲傳先生之技, 于今三年矣. 先生有所秘而不傳, 吾無以復命. 允興捧酒, 其婦執蓋膝行, 致禮盡誠, 然後傳其所秘飄風等三曲. 安長傳其子克相·克宗, 克宗制七曲. 克宗之後, 以琴自業者非一二, 所製音曲有二調, 一平調, 二羽調, 共一百八十七曲, 其餘聲遺曲, 流傳可記者無幾, 餘悉散逸, 不得具載.”

는 명칭이다. 사대등은 대등(大等)을 사(仕)하는 존재인데, 사(仕)는 벼슬한다, 혹은 살핀다는 뜻이 있으므로 사대등의 임무는 대등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¹³⁾

북원경 장관이 관리하던 대등(大等)의 존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주 흥법사 터에 있는 진공대사 충담의 비 음기이다. 충담이 입적한 940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웠을 이 비의 음기에는 재가제자(在家弟子)와 삼강전(三綱典), 주관(州官)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관(州官)에는 낭중 2인과 시랑 2인과 함께 상대등(上大等) 1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¹⁴⁾ 이 자료의 상대등은 고려 성종 2년 향직 개편 시에 호장(戶長)과 부호장(副戶長)으로 개편되는 당대등(堂大等)과 대등(大等) 가운데 당대등을 말하는데,¹⁵⁾ 그렇다면 북원경에도 상대등과 함께 대등층(大等層)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흥덕왕대 복식규정에서 경주에 진골과 대등(眞骨大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들 대등은 9주 5소 경제를 시행하던 시기부터 신라 통일기 수도였던 경주와 주치소(州治所)·소경(小京)이 있었던 곳에 존재하였던 직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⁶⁾ 그리고 이 대등층은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왕에의 신속(臣屬)과 일정한 임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관직에 해당하며, 그러면서도 하급 실무층과 구분되는 국가적 차원의 상급 공무 수행을 하는 관명이라 하겠다.¹⁷⁾

북원경의 하급실무층에 해당하는 존재로는 촌주층(村主層)이 있다. 신라 촌락문서의 서원경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소경의 관할 하에는 촌(村)이 있었다. 촌에는 물론 촌주가 있었겠지만 소경에 촌주 한 명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856년(문성왕18)의 규홍사 종명을 보면, 현령 밑에 상촌주·제이촌주·제3촌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¹⁸⁾ 소경의 행정업무도 다수의 촌주층이 담당하였을 것이고, 이들이 행정업무를 맡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촌주위담(村主位畜)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원경의 장관은 대등층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행정을 운영하였고, 촌주층을 동원하여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북원경을 통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林炳泰, 1967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合, pp100~103.

14) 하일식, 1999 [고려 초기 지방사회의 주관(州官)과 관반(官班) - 금석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론적(試論的) 해석 -] 『역사와 현실』 34.

15) 『고려사』 권75 선거3 전주 향직 성종 2년. “성종 2년에 州府郡縣의 吏職을 고쳐 兵部를 司兵으로, 倉部를 司倉으로 하였으며, 堂大等を 戶長으로 大等を 副戶長으로 郎中을 戶正으로 員外郎을 副戶正으로 執事를 史로 兵部卿을 兵正으로 筵上을 副兵正으로 維乃를 兵史로 倉部卿을 倉正으로 삼았다.”

16) 김광수, 1979 [나말여초의 호족과 관반] 『한국사연구』 23, p127.

17) 김광수, 1996 [신라관명 대등의 속성과 사적추이] 『역사교육』 59, p68.

18) 節 縣令 舍梁萱榮 時 都乃 聖安法師 上村主 三重沙干 堯王 第二村主 沙干龍河口 第三村主 及干貴珍 大匠大奈末 馱溫衾(窺興寺鐘銘: 856년)

3. 9세기 후반 북원부(北原府) 정치세력의 동향과 불교계의 역할

북원경의 관할 영역을 확대하여 부제(府制)를 실시한 시기는 흥덕왕 3년에서 12년 사이로 추정된다.¹⁹⁾ 당시 신라가 소경의 영역을 확대한 배경은 우선 당나라에서 713년에서 757년에 걸쳐 5경·5부 제도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²⁰⁾ 국내적으로 농민유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과 골품체제의 붕괴를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²¹⁾ 이러한 정책에 따라 북원경에도 △강부(△江府), 즉 북원부(北原府)가 설치되었다.²²⁾

북원경이 북원경과 북원부로 바뀌면서 북원경의 관할 영역은 고려 시대의 원주와 같이 바뀌었을 것이다. 즉 고려시대 원주의 속현으로 영월군·제주·평창현·단산현·영춘현·주천현·황려현 등이 있는 것을 상기해 보면,²³⁾ 북원부(北原府)의 관할 영역 역시 고려시대 원주가 이끄는 속현(屬縣) 중에서 신라 통일기 9주 가운데 하나인 명주(溟州) 관할 하의 영월군과 평창현, 영춘현, 주천현, 한주(漢州) 관할 하의 황려현을 제외한 제천·단양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배종도, 1989 [신라시대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 11, 43쪽.

20)「구당서」 권8 현종 상 개원 원년 12월, 개원 11년 춘정월, 「구당서」 권10 숙종 지덕 2년 12월.

21)배종도, 1989 [앞논문], 44~46쪽.

22)이지관, 1993 [충주 월광사 원랑선사 대보선광탑비문] 「역주 역대고승비문」. 배종도, 1989 [앞논문], 38~39쪽.

23)「고려사」 권56 지리1 원주.

領縣	原州 (州司)		部曲：刀谷(蔡·尹)·刀乃
			所：所吞(池)·金々谷·射林
屬縣	寧越郡 (屬郡司)	高麗初 來屬 恭愍王21年 陞知郡事	部曲：直谷
			鄉：買乃·々伊吞
			所：楊等·梨木·耳達·省旆吞·注文伊·居吞
	提州 (屬州司)	顯宗 9년 來屬 睿宗 元年 監務 設置	部曲：買林·陽城·小堂
			所：空梓
			處：山尺
	平昌縣 (屬縣司)	高麗初 來屬 忠烈王25年 置縣	部曲：沙西良
			所：沓谷·古林·新林·石乙項·梁吞·乃火谷
	丹山縣 (屬縣司)	提州 領顯 顯宗 9년 來屬 忠肅 5년 知丹陽郡事	所：金衣谷
			莊：買浦
	永春縣 (屬縣司)	高麗初 來屬 속현으로 계속 남음	部曲：立石·沓谷·所耻谷 所：澤坪·於上川
	酒泉縣 (屬縣司)	新羅 時 寧越郡 領縣 顯宗 9年 來屬 속현으로 계속 남음	
	黃驪縣 (屬縣司)	顯宗 9年 來屬 後置監務 忠烈 31年 陞驪興郡	
江：蟾江 漕倉：興原倉			驛道：平丘道

북원경이 북원부로 확대되면서 9세기 전반 이 지역의 농민유망을 막아 통일기 신라의 지방 행정 지배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부론면의 거둔사에는 864년(경문왕4)에서 879년까지 희양산문의 지증 도현이 주지로 있었는데,²⁴⁾ 경문왕의 누이였던 단의(端義) 장옹주(長翁主)의 주선으로 지증 도현이 거둔사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왕에 부론면 일대에 세력을 떨쳤던 안락사(安樂寺)의 사원지배체제를 교체하기 위해 사찰의 이름을 거둔

24)이인재, 2001 [나말여초 원주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p214.

사로 바꾸고 주존불을 1장 6척의 철불로 바꿈과 동시에 후원세력인 단의 장옹주의 시주와 토지만 500결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거둔사에 기증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보강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이로 보면 이미 이 시기에 원주 부론면 일대에는 통일기 신라의 행정과 사원 지배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非)신라적 농민·촌주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신라 하대 행정구역으로서 북원부의 지배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9세기 농민항쟁이 격화되고, 호족의 시대를 맞이한 시기부터였다. 이런 움직임을 결집한 사람으로는 역시 양길(梁吉)을 들 수 있다. 양길에 등장에 대해 안정복은 889년(진성여왕3) 양길이 북원(北原)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⁴⁾ 889년(진성여왕3) 전국의 주군(州郡)이 공부거납(貢賦拒納)에 나섰을 때²⁵⁾ 북원부의 저항세력의 하나로 성장했다고 한 것이 공식 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886년(정강왕1) 북원부의 속현이 된 영월군 수주면 흥녕선원에 주석하고 있던 징효대사 절증이 상주로 몸을 피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농민반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기록에서는 왕실이 위태롭기가 달걀을 썬아 놓은 것 같아 곳곳에 불타는 연기와 말달리는 먼지가 갑자기 일어나니 요사스런 기운이 절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⁶⁾

비(非)신라적 농민·촌주세력들의 움직임을 결집하여 영원산성을 중심으로 봉기한 양길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8세기말 9세기 전반 경주에서 벌어진 왕위쟁탈전이 소경인 북원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신라 소경 정책의 일환으로 북원경에 이주해 왔던 경주계 진골출신들이 왕위쟁탈전으로 동요하였을 것임은 분명하고 822년(헌덕왕3) 3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빌미로 웅주(현 공주) 도독이었던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주요한 영향이었을 것이다. 반란 당시 김현창 측에선 국원경(현 충주)과 달리 북원경(현 원주)은 경주 편에 섰지만 적극적인 가담이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864년 경문왕이 북원부 서쪽 거둔사에 왕실세력의 지원하에 지증 도현이 주석을 하게 했던 것도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원경에 거주하던 경주계 진골귀족세력,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 세력, 촌주층과 농민세력들의 안정을 도모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880년대 북원부 동쪽에 있던 흥녕선원에 현강왕과 정강왕의 요청으로 사자산문의 징효대사 절증이 주석을 하였지만 이마저 불타버

25)『동사강목』 卷5상 기유년(진성여왕3년).

26)『삼국사기』 권11 진성여왕 3년.

27)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연구반, 1996 [홍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하)」, p211.

리고 만 것은 촌주·농민 세력들의 조세 납부 거부운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非)신라적 농민·촌주세력들을 결집하여 봉기한 양길(梁吉)로서는 영원산성을 거점으로 안으로는 북원부의 여러 정치·사회 세력들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우선 서남쪽으로 9세기 전반 김현창의 난 때 김현창 편에서 국원경의 민심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동북쪽으로는 북원부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북원부로 편입된 영월과 체천 등 명주 세력들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세기 중반 영월 태수(椽城郡太守)로 있던 김주원의 증손 김흔(金昕) 세력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명주계 김흔 세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찰이 석남사(石南寺)와 세달사(世達寺)이다. 석남사는 최근 신종원의 연구로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에 있던 절골로 그 위치가 확인된 바 있는데,²⁸⁾ 이를 통해 석남사는 원래 고대 신앙의 신성지역에서 불교가 들어온 후 무불융합적인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⁹⁾ 그러다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 의상계 화엄승려인 신림(神琳)이 영향을 미쳤던 곳으로 추정되고,³⁰⁾ 9세기 중반이후 10세기초에는 선종계 사굴산파의 세력권에 있었던 사찰로 생각되는 점이 있다.

사실 석남사가 사굴산파와 관련이 있던 시기는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 832~916)이 916년(신덕왕 5) 입적하기 한 해전에 경주 실제사(實際寺)에 안거하다가 7월 왕실세력인 명요부인(明瑤夫人)의 요청으로 석남산사에 주지를 했던 915년(신덕왕4)이다. 행적이 입적한 석남산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원주 치악산으로 비정하기도 하고,³¹⁾ 경북 봉화로 비정하기도 한다.³²⁾ 이 중 후자의 견해가 유력한 것은 이 탑비의 유래가 원래 경북 봉화군 명호면 태자사(太子寺) 터였으나, 1509년 당시 영천군수인 이항(李沆)이 경북 영주군 영천면 휴천리 자림루 아래로 옮겨 세웠다가 1918년 현재의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의 태자사가 나말여초 석남사였던 것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이해하였고, 자연히 석남사의 위치가 봉화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28)신종원, 1994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 민속] 『정신문화연구』 17권 1호.

29)석남사라는 절의 명칭은 건손석(乾孫石)의 남쪽에 세웠다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손석은 신라 말 도선이 원주의 건손(乾巽) 방향 즉 동남쪽이 공허하다고 하여 돌을 두어 늘렸다고 한 바위인데, 아마도 이 바위 남쪽 방향에 있다고 하여 석남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輿地圖書(上)』 江原道 原州 古跡. p505.

30)이인재, 2001 [앞논문], p203

31)한기문, 1991 [고려 역대 국사·왕사의 하산소의 존재양상과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 16, p66.

32)김두진, 1986 [신라시대 굴산문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논총』 17, p303.

그런데 이 태자사(太子寺) 낭공대사(朗空大師) 백월서운탑(白月栖雲塔) 비문을 자세히 검토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눈에 띈다. 주지하다시피 이 비문은 나말여초 최언위(崔彦擣, 혹은 崔仁洸)가 썼다. 당시 최언위가 확실히 작성한 승려의 비문은 모두 11개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액(題額)이 확실한 비문 9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題 額
낭 공	新羅國 故 兩朝國師 教誡 朗空大師 白月栖雲之塔 碑銘并序
진 철	有唐 高麗國 海州 須彌山 廣照寺 故 教誡 眞澈大師 寶月乘空之塔碑銘 并序
대 경	高麗國 彌智山 菩提寺 故 教誡 大鏡大師 玄機之塔 碑銘 并序
낭 원	高麗國 溟州 普賢山 地藏禪院 故國師 朗圓大師 悟真之塔碑銘 并序
자 적	高麗國 尙州 鳴鳳山 境淸禪院 故教誡 慈寂禪師 凌雲之塔碑 銘并序
법 경	有晉 高麗國 中原府 故 開天山 淨土寺 教誡法鏡大師 慈燈之塔 碑銘 并序
법 경	有晉高麗國 踊巖山 五龍寺 故 王師 教誡 法鏡大師 普照慧光之塔 碑銘 并序
징 효	有唐 新羅國 師子山 興寧禪院 故 教誡澄曉大師 寶印之塔碑銘并序
선 각	高麗國 故無爲岬寺 先覺大師 遍光靈塔碑銘 并序

즉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위치한 산명과 사찰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낭공 행적의 경우에는 산명과 사찰명 모두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인데, 이는 곧 최언위가 작성했던 원 비문의 제액 내용과 비를 세울 당시 비문의 제액 당시 생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역시 낭공 행적이 입적한 곳과 비를 세운 곳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석남사의 위치를 굳이 경북 봉화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최근에 원주에서 확인된 석남사가 행적이 입적한 석남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주 사굴산과와 관련된 북원부 관련 사찰이 석남사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달사는 이후 흥교사(興敎寺)로 사찰명을 바꾼 곳으로 소재지는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 남면(南面) 흥월리(興越里) 흥교동(興敎洞) 대화산(大華山)이다. 세달사는 유명한 궁예가 어린 시절 머물렀던 사찰로 대화산(大華山)의 영월쪽에 이 절이 있었다면, 영춘쪽에는 화엄십찰의 하나인 비마라사가 있었다.³⁹⁾ 이 세달사는 의상계 화엄사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9세기 중반 명주군왕 김주원의 증손이면서 영월태수를 역임한 김흔과 관련된 주요 사찰로는 석남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까지 화엄사찰이었던 석남사

가 김흔(金昕)이 영월군수로 있을 즈음에 명주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847년 입당구법(入唐求法)한 후 귀국한 범일(梵日)이 명주 굴산사에 자리잡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언젠가 의상계 화엄 사찰이었던 석남사가 사굴산문의 선종사찰로 전환되면서 뒤에 행적이 머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간 이러한 상황에서 비(非)신라적 농민·촌주세력들을 결집하여 봉기한 양길(梁吉)로서는 안으로는 북원부의 여러 정치·사회 세력들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우선 서남쪽에 있던 국원경의 민심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동북쪽으로는 영월과 제천 등 명주 세력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상황에 있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양길(梁吉)의 정치·사회적 과제를 일부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궁예(弓裔)였다.

양길이 보기에 궁예에게는 현안왕 혹은 경문왕의 아들이었다는 풍설도 있었고, 어린 시절은 세달사에서 보냈으며, 바로 전해에 지금의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 자리잡은 죽주(竹州) 장군 기훤 밑에서 신라말 농민항쟁에 대한 경험을 한 인물이었다.³⁴⁾ 북원경과 명주의 낙향 진골세력들과 화엄계 사찰세력, 농민세력들의 요구와 해결책을 모두 갖추 경험에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력을 가진 궁예에게 명주세력의 일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석남사를 비롯한 치악산 동쪽을 맡기면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궁예는 892년(진성여왕6) 양길을 도와 기병 100명을 동원하여, 자신이 승려로 있을 때 지역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던 영월군 관내의 평창·주천 등을 습격하였다.³⁵⁾ 그리고 두 해 후인 894년(진성여왕8) 궁예는 따르는 무리 600여명을 이끌고, 원주에서 영월을 지나 강릉을 공략하는 전공을 세웠던 것이다.³⁶⁾ 그 과정에서 궁예의 세력은 급격히 성장하여 원주 이동(以東) 지역의 공격을 마무리짓는 강릉 공격 때에는 따르는 무리가 3500명이나 될 정도로 되었고,³⁷⁾ 무리의 추대를 받아 스스로를 장군이라 칭하여 거의 거대한 독립 호족의 단계에 이르렀다.³⁸⁾ 이렇듯 「삼국사기」 기록에는 궁예가 전투에 승리하여 원주 이동(以東) 지역에서 명주(溟州)까지 장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주의 관할 하에 있었던 영월이동 지역의 호족들과 궁예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궁예가 그렇게도 쉽사리 이 지역을 관할 하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94년(진성여왕8) 강릉에 들어간 이때 이미, 궁

33)이인재, 2001 [앞논문].

34)「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궁예가 기훤 밑에 들어간 해는 891년이였다.

35)「삼국사기」 권11 진성여왕 5년 동10월.

36)「삼국사기」 권11 진성여왕 8년 동10월.

37)「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38)「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에는 양길과의 결별을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양길은 원주 이동(以東) 지역을 궁예에게 맡기고 자신은 원주 이서(以西) 즉 국원경(國原京) 공략에 나섰다. 양길이 국원경을 비롯한 30여개 성을 빼앗는 구체적인 과정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894년(진성여왕8) 원주 이동(以東) 지역의 공략을 맡기고 곧바로 자신은 이서(以西) 지역 공략에 나섰다 것으로 생각된다. 속설에 따르면 주포리 미륵산에 양길이 진(陣)을 쳤다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경로인 양안치 고개와 소태재를 넘어 국원경을 공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길과 궁예의 격돌은 894년(진성여왕8) 강릉 장악이후 궁예가 인제·화천·금화·금성·철원 등 강원 북부지역을 장악하고, 경기 북부와 중부 지역을 세력을 넓혀 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때 이미 국원경 등 30여성을 장악하면서 북원에 웅거하고 있었던 양길은 궁예가 배반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졌다. 이에 양길은 899년(효공3) 충주, 정주, 괴산 지역의 호족들과 연합하여 궁예를 공격하였으나 비뇌성에서³⁹⁾ 오히려 패배하였다.⁴⁰⁾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양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전투에서 양길이 전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길의 패전 후 북원부의 동향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궁예는 다음해인 900년(효공4)에 왕건을 보내 충주·청주·괴산 지역과 협상하였는데,⁴¹⁾ 그 결과 이 지역의 호족인 청길·신훤 등이 투항하는 성과를 거두었고,⁴²⁾ 그 공으로 왕건은 아찬이 되었다.⁴³⁾ 이후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을 칭한 후 내외의 관직을 칭하고 국호를 고려로 칭하였다.⁴⁴⁾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양길이 웅거하고 있었던 북원 지역이 궁예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 지 알 수 없다. 단지 904년 궁예가 청주인들을 사민(徙民)하여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 마진을 건국하였음을 볼 때,⁴⁵⁾ 충주·청주 지역의 호족세력들과 협조적이었고, 궁예가 북원부 속현인 영월 세달사에서의 경험과 양길에게 투탁한 후 2년여를 북원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북원경이 신라 통일기부터 경주에서 안동·죽령을 지나 단양·제천·원주와 홍천·춘천·철원을 잇는 주요 교통로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다.

39)비뇌성(非惱城)은 「삼국사기」 三國有名未詳地分에 수록된 곳으로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금화읍으로 추정하고 있다.

40)「삼국사기」 권12 효공왕 3년 추7월.

41)「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42)「삼국사기」 권12 효공왕 4년 10월.

43)「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44)「삼국유사」 권1 왕력 후고려 신유.

45)「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4. 10세기 전반 북원부(北原府) 정치세력의 동향과 불교계의 역할

900년(효공4) 왕건의 충주·청주·괴산 호족과의 대 타협 이후 원주는 후삼국 쟁패기에서 일단 벗어나 있었다. 궁예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이 성장하였고 기신(起身)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원주에 대해 10여 년 간 양길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후삼국 쟁패의 전장(戰場)도 이제 북원부와 떨어져 있어 상당한 기간 평화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 이후 사정은 달랐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원의 재지 호족과 재지민은 앞으로의 운명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선택을 해야 했다. 왕건이 즉위한 초창기에 궁예의 관할 하에 있던 각 지역에서는 왕건의 등장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궁예 관할하의 각지에서 모두 겪어야 할 것이었는데, 실제 청주지역 출신 가운데에는 왕건의 등장에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⁴⁶⁾ 이를 무마하기 위해 왕건은 혼인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호족정책을 구사하여, 그 결과 즉위 후 5년 정도를 전후하여 명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호족들이 투항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⁴⁷⁾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북원의 호족들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취해야 했다. 선불리 적대감을 드러낼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왕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어려웠다. 이 지역은 원래 북원소경 지역으로서 신라의 골품 관료들이 수 백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었고, 양길이 1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있다가 무너진 지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후 20여 년은 궁예의 영향 하에서 보냈다. 양길과 궁예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왕건에게 급격히 기울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왕건은 지방민을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왕건이 918년 6월에 즉위한 후 첫 번째 취한 군현민 정책은 군현민이 부담하는 부세를 줄여 주겠다는 것이었다. 왕건은 즉위한 제 일 성으로 궁예가 부역을 번거롭게 하고 과세를 과중하게 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국토는 황폐해 졌다고 하였다.⁴⁸⁾ 그리고 나서 한달 뒤 종래 좋은 토지 1결에서 6석을 내던 것을 2석으로 줄이겠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⁴⁹⁾

두 번째로 왕건은 앞으로 지방제도의 기초는 신라의 정책을 따른다고 하였다. 신라의 관계나 관

46) 김갑동, 1985 [고려건국기의 청주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 48.

47) 하현강, 1974 [고려왕조의 성립과 호족연합정권] 「한국사」 4.

48)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정사.

직, 군읍(郡邑)의 호칭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궁예는 이를 모두 새로운 제도로 바꾼 듯하다. 분명 원주도 이전의 복원부로 두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건은, 백성들이 새로운 명칭에 익숙해지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니 다시 신라의 제도로 바꾼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으로 궁예가 고친 이름 가운데 알기 쉬운 것만은 새 제도를 쫓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⁵⁰⁾

세 번째로, 왕건은 이와 함께 신하로서 제왕의 창업을 도와 특출한 책략으로 세상에 드문, 높은 공훈을 세운 자는 봉토를 나누어주고, 높은 품계와 벼슬을 주어 표창하겠다는 조서를 반포하였다.⁵¹⁾ 이러한 조치는 재지(在地) 호족으로서 왕조 건국기의 혼란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면, 재경관인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 조치는 그대로 시행되었다.⁵²⁾

네 번째로 재지 호족에 대한 정책으로는 왕건에 협조하면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⁵³⁾ 예를 들어 921년(태조3) 강주 장군 윤웅이 자신의 아들 일강을 개성에 보내어 볼모로 삼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왕건은 일강에게 아찬의 관계 官階를 주고, 중앙 고급 관인의 여자와 혼인을 시켜 주었다. 그리고 윤웅에게는 그대로 강주 지역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절을 파견하여 위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고려초 개정정부의 군현민 정책의 수용여부를 놓고 원주지역의 재지 호족(在地豪族)과 재지민(在地民)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실제 복원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 복원정 시절부터 신라식 관제와 조세제에 익숙했던 집안도 있었을 것이고, 양길과 궁예의 영향력은 사라졌더라도 두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 궁예식 질서에 익숙해 져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군현민 정책을 신라식 제도로 복귀하고,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 주겠다는 왕건의 조치는 매우 호감이 가는 조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복원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태조의 군현민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왕조 교체에

49)「고려사」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신우 14년 7월 대사헌 조준 상서. "自今 宜用什一 以田一負 出租三升". 이는 결국 신라 통일기의 조세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인재, 1995 「신라통일기 토지제도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50)「고려사」권1 태조 원년 6월 무진.

51)「고려사」권1 태조 원년 추7월 신해.

52)실제 고려 전기 지배세력 가운데 토성 출신이 많은 것을 보면, 이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 시의성과 현실성이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수진, 1984 「고려 전기 지배세력과 토성」 「한국중세사학회연구」

53)하현강, 1988 「태조의 대내정책과 정치사상」 「한국중세사연구」.

54)「고려사」권1 태조 3년 춘정월.

무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보이는 원주에 대표적인 토성인 원주 원씨의 원극유(元克猷)와 원극부(元克富)는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지광국사 해린의 선조와 할아버지 원길전은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원극유는 신라 북원인(北原人)이었다.⁵⁵⁾ 그는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 태봉 관할 하에 있던 주군현(州郡縣)을 평정시킬 때에 북원경 지역에서는 원극유가 보좌하여 무사히 고려의 관할 하에 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삼한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⁵⁶⁾ 원래 삼한공신(三韓功臣)이란 태조가 후삼국통일의 유공자에게 준 공신 호칭이었기 때문에, 삼한공신이 된 이는 직첩(職牒)을 받고 공신당(功臣堂)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세력의 독자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원극유 역시 북원경에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고려에서 취득한 관직은 병부령이었으며, 관제는 정4품 문산계인 정의대부(正議大夫)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원극유가 취득한 병부령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가 삼한공신이 된 후 바로 개경으로 갔는지는 의문이다. 병부령은 건국기에 개경 병부의 장관이었다.⁵⁷⁾ 개경의 병부는 태봉의 관제를 계승한 것으로,⁵⁸⁾ 무관의 선발·군무(軍務)·행사가 있을 때 왕을 따라가서 보위하는 의장병을 관할하는 일·공문서나 관원들의 왕복을 위한 역참 관제 업무 등을 관할하였다. 918년(태조1)에 병부와 병부령·병부경·병부낭중을 두었으나 934년(태조16)에 병관으로 고치고, 병관 어사·병관시랑·병관낭중·병관원외랑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성종14년에 상서병부로 고치었다.⁵⁹⁾ 그렇다면 원극유는 918년에서 934년 사이에 병부령을 역임한 것이

55) 이하 원극유에 관한 서술은 다음 자료와 논문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고려사」권107 열전 원부, 최해 崔海, 「졸고천백 拙藁千百」 권1, 권2, [원충묘지명 元 墓誌銘], [원선지묘지명 元善之墓誌銘], [원소신묘지명 元昭信墓誌銘], 김광수, 1973 [고려태조의 삼한공신] 「사학지」 7, 이수전, 1984 [고려전기 지배세력의 성관분석]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김갑동, 1988 [고려 초기 관제의 성립과 그 의의] 「역사학보」 117, 김갑동, 1990 [고려초기의 관계제와 공신제] 「나말여초의호족과 사회변동연구」.

56) 왕건은 918년 6월에 고려를 건국한 후 2달째인 8월에 1등공신 4명, 2등공신 7명과 3등공신 2000여명을 포상하였고 하는데, (「고려사」권1 태조 원년 8월 신해) 이들이 開國功臣이다. 이후 태조 23년 신흥사를 중수하여 공신당을 설치하고, 동서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놓고 하루 밤낮동안 무차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고려사」권1 태조 23년) 이들은 三韓壁上功臣이다. 이와 함께 "佐太祖爲功臣"으로 표기되는 인물들도 많은데, 이들이 三韓功臣이다. 원극유도 삼한공신이었다.

57)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신유. “波珍蔡林曦爲兵部令”

58)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천우 원년 갑자.

59) 「고려사」 권76 백관1 병조.

60) 「고려사」권78 식화1 전제 전시과 태조 23년.

된다. 개경에 살게 되면서 원극유는 지역의 토성과 함께 태조 23년 역분전을 받았을 것이고,⁶⁰⁾ 원주의 사십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이후 원극유는 광종대 정치적 변혁기를 거쳐 경종 2년에 개국공신으로서 훈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⁶¹⁾

한편 원극부는 원주지역의 향리직을 대대로 계승한 인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미수 허목의 세계도를 보면 원극부는 고려말 유학자인 원천석(元天錫)의 7대조 할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도 재지 관반이었던 원극부 가문의 세계가 잘못 파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극부는 고려 태조의 군현민 정책을 수용하여 대대로 향리직을 수행한 인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해린이 속한 원씨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은데, 그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직책은 아관(衙官)에 버금가고, 명에는 연리(緣吏)에 앞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앙 관계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향리직에만 머문 집안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 집안 사람들이 사회 변동에 대처하는 방식은 정세 변동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 같다. 이는 신라 하대 사회 변동이 극심했던 시기 고조와 증조 할아버지의 삶은 서술한 관련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시기 그들은 선을 쌓고 경사로움을 늘려 편하게 자리잡아 변하지 않는 역사를 꿰뚫고, 선인들이 검약하던 풍모를 쫓아 그 질박함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 이름이 원길견인 해린의 할아버지도 점을 치고 음양을 살펴 세상으로 하여금 미혹한데 이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고려 건국과정에서 개경 정부는 군현 정책을 통해 제지세력과 재지민을 포섭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불교정책을 통해 사원과 승려, 재지 호족과 재지민을 수용하려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다. 실제 왕건은 죽기 얼마 전인 943년 박술회를 불러 훈요십조를 주면서 앞으로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부처님을 섬기는 연등회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⁶²⁾ 불교세력들을 적극 포섭하려 했던 스스로의 입장을 후세 고려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초 개경정부는 불교세력의 견제책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가령 왕족이나 대신들이 원당(願堂)을 세운다고 원칙 없이 사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으니 도선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에 따라서 세울 곳에만 세운다거나 대신과 주지와 결탁하여 사원간의 쟁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견제책이라 할 수 있다.⁶³⁾ 특히 사원의 남설(濫設)은 훈요십조

61)「고려사」권 78 식화1 전제 전시과 공음전시 경종 2년 3월, “開國功臣 및 向義歸順城主 등에게 勳田을 주었는데, 50결에서 20결까지로 차등있게 주었다.”

62)「고려사」권2 태조 24년 하4월, 훈요십조 기사 중 제1조와 제6조 참조.

기사에 보이듯이 왕건 자신이 신라 멸망의 한 요인으로 간주할 만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40여 년이 지난 982년(성종1) 최승로가 시무책을 제시할 때에도 거론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⁶⁴⁾ 가령 사원을 짓다보면 불상과 불경이 필요한 데 이를 금을 사용하면 그 만큼 사치스럽게 되고, 사원을 운영하다보면 불보(佛寶)의 전곡(錢穀)을 고리대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6조) 사원간의 경쟁으로 왕실과의 결합을 위해 승려들의 궁중출입이 잦아들게 되어 갖은 폐단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었다(8조). 이에 더하여 승려들이 지방을 왕래할 때에 관·역에 유숙하는데 따르는 폐단도 만만찮을 것이고(10조), 이에 임금도 가세하여功德齋(功德齋)를 올린다하여 생기는 갖가지 폐단이나(2조), 임금이 직접 나서서 길가는 사람에게까지 보시해야 한다는 사소한 데에까지 신경을 쓰게 되어(4조) 갖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⁶⁵⁾ 고려 태조 왕건이 제시한 불교정책의 요체는 본래 사찰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사찰의 대민 지배나 수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려 정부의 이러한 불교계 포섭책과 견제책을 원주 불교계(佛教界)에서는 일단 수용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궁예의 불교정책이 미륵정토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전(經典) 20여권을 저술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가차없이 징벌할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⁶⁶⁾ 고려 정부의 불교정책은 일단 전래의 신라 불교정책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 자체의 신앙적인 독자성은 인정하면서 사찰의 대민 지배나 수탈을 견제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원주 불교계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항은 왕건이 궁예정권을 대체하기 몇 년 전인 915년 7월 신라 신덕왕이 왕실세력인 명요부인(明瑤夫人)을 동원하여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 832~916)을 석남사에 머물게 한 사실이다. 이 915년에 원주에 영향력이 컸던 궁예가 부인 강씨와 두 아들을 죽이고, 왕건 역시 궁예와 대립한 후 나주로 내려갔던 때였다. 바로 이때 사굴산문의 고승인 행적을 복원부에 보냈다는 사실은 이때 신라에서도 꾸준히 선종 승려들에 청탁하여 지방민들의 포섭을 시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행적의 사망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다.

63)「고려사」 권2 태조 24년 하4월. 훈요십조 기사 중 제1조와 제2조 참조.

64)「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65)하현강, 1975 「최승로의 정치사상」 「이대사원」 12 ; 1988 「한국중세사연구」.

66)「삼국사기」 卷50 궁예전. “자신이 經典 20여권을 저술하였는데 그 말이 요망하여 다 신빙하지 못했다. 때로는 단정히 앉아 佛說을 강론하니 僧 釋聽이 말하기를 '다 邪說怪談으로 訓戒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궁예가 듣고 그를 鐵槌로 쳐 죽었다.”

다른 하나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곧바로 진공대사 충담을 흥법사에 머물게 한 조치이다. 충담은 태조의 왕사로서 940년 가을 7월 원주 명봉산 흥법사에서 열반하였다. 그러자 왕이 친히 비문을 짓고 탑을 세웠다.⁶⁷⁾ 이 해는 태조 23년으로 그해 3월 왕건은 전국 주부군현(州府郡縣)의 명칭을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 원주도 북원부에서 원주로 개칭된 해였다.⁶⁸⁾ 고려 개정정부 역시 군현 명칭과 지방세력 개편이라는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당대 이름을 날리던 선종승려를 통해 민심 수습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변동기 정치계와 종교계가 각기 담당했던 역할은 상당히 명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나말여초 신라 5소경의 하나였던 북원경 정치세력의 재편 양상과 원주 불교계의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기왕의 학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 시기 사회변동을 이해해 왔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북원경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말여초에 대한 이해는 신라 하대 골품체제가 무너진 후 호족이 등장하였으며 통일기 신라의 대토지소유와 농민지배가 고대적이고 예민수취였던 것에 반하여 고려로 들어오면 중세적 대토지소유와 수취로 바뀌며 신라 지성계가 고대적 지성인 것에 비하여 나말여초 선종승려들이 등장하면서 중세적 지성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기왕에 필자가 작성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기 신라의 수취제도와 고려의 수취제도에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궁예의 수취제도가 지나친 감이 있었는데, 이 점은 궁예의 여러 정책이 신라 전통이라던가 새로운 제도로의 변용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궁예의 이런 정책은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중세적 체제를 경주 중심의 진골귀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궁예 방식의 왕조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간주된다. 그러므로 나말여초 사회 변동의 여러 양상은 오히려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라 하대의 지방제도는 고려의 지방제도와 맥을 같이 하였고, 불교 정책 역시 왕건이 표방한 대로 신라를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말여초 북원경의 정치세력 재편과 불교계의 대응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 「고려사」 권2 태조2 23년 추7월.

68) 「고려사」 권2 태조2 23년 춘3월.

첫째, 7세기 후반 신라는 통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국을 9주 5소경제로 재편하고 원주에 북원경을 설치하였다. 북원경의 영역은 지금의 원주시와 같은 규모였고, 치소(治所)도 현재 감영 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원경의 주민구성은 원래 원주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경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으로 되어 있었다. 신라가 소경제를 운영한 것은 충주와 남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 후 옛 삼국의 유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조치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음악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신라 중심적 재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북원경의 장관을 사대등으로 임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시기 북원경의 대등총과 촌주총이 경주 진골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의 유민, 원주의 토착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북원경의 장관은 이들 여러 지방 유력층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북원경 통치에 나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그러나 백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북원경의 지배체제는 9세기 전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왕위 쟁탈전의 여파로 북원경과 인접 지역에도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822년(헌덕왕3) 김헌창의 난이 본격화되면서 국원경은 김헌창 편에 가담하고 북원경은 관망자세를 취하는 등 경주 중심의 정치적 혼란이 원주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점은 거돈사의 전신이었던 안락사의 정치적 처신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데, 경주 왕실 세력이 지증 도현을 통하여 기왕의 안락사 세력을 제압하려고 한 점을 보면 비(非)신라 왕실적 자세를 취했음이 분명하다. 당연히 북원경의 대등총이나 촌주총, 그리고 농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 정부에서는 각 지역 소경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확대정책을 취했다. 이른바 부제(府制)의 성립이다. 이에 따라 북원경의 행정 구역은 고려시대와 같은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새롭게 확대된 영역 가운데에는 이전에 명주의 관할 하에 있었던 영월과 체천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주세력과의 일정한 교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북원부의 새로운 지방 지도층들이 정치·행정적으로 이런 과제를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비마라사의 화엄 십찰 인정이라든가, 거돈사의 지증 도현이나 흥녕사의 징효 절중을 통한 원주 불교계와 농민들의 안정을 꾀하였으나, 이 또한 징효 절중의 886년 상주 피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후 원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촌주총과 농민들이 연합한 조세 거납 운동에 참가하였을 것이고, 이 와중에서 양길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양길이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원주와 원주 이서, 원주 이동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양길은 스스로 찾아온 궁예를 활용하여 원주 이동 지역에 강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던 명주세력과 타협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라 진골 귀족과 화엄 불교계, 죽주 호족의 세계를 경험한 바 있는 궁예로서는 양길의 원주 이동지역에

관한 정책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원주와 원주 이서 지역(충주)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던 양길과는 군사적 자웅을 겨루지 않을 수 없었고, 양길과 궁예의 대결은 이 시기 궁예의 직접적인 세력권 하에 있었던 비뇌성(금화) 전투로 말미암아 궁예의 승리로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따른 왕건의 후방 수습책으로 원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 궁예의 영향 하에 있게 되었다.

넷째, 10세기 전반 원주는 후삼국 쟁투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후삼국의 세력이 다투던 전장(戰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궁예에서 왕건으로 정치적 중심이 변하던 시기 원주 토착세력 가운데 원극유가 일단 왕건을 인정함으로써 나말여초 사회변동기에 원주 지역사회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915년 경주 왕실의 낭공 행적을 석남사에 머물게 해서 친신라적인 불교세력을 지원하려고 했다거나 후삼국 통일전쟁이 끝난 후 왕건이 충담을 흥법사에 보내 친고려적인 불교세력을 지원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지역의 국내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